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
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8. 8

김민우*·노원종**

조사국 국제무역팀

*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Tel : 759-4433, kmwoo@bok.or.kr)

** 조사국 국제무역팀 조사역(Tel : 759-4259, ianwjroh@bok.or.kr)

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익한 조언을 주신 조희근 국제무역팀장님과
자료조사에 수고해 주신 오도손 조사통계보조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 례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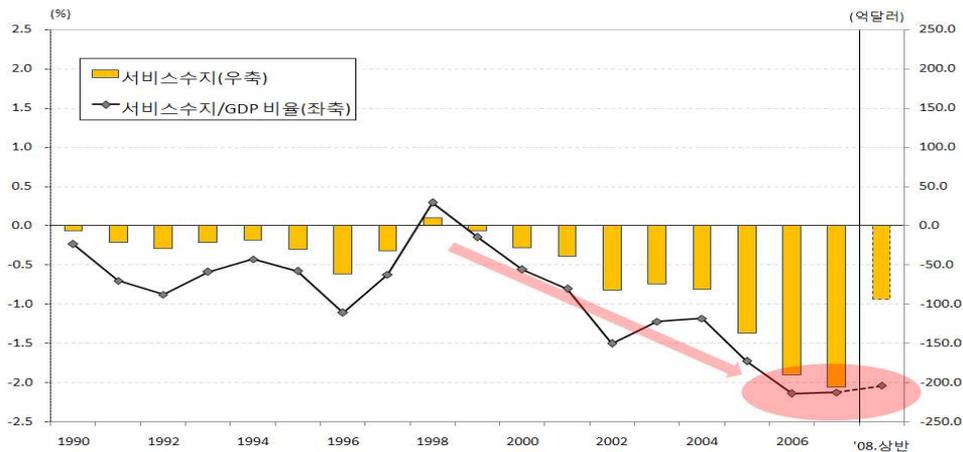
I. 검토배경	1
II. 서비스수지 부문별 현황	2
III.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	7
IV.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	21
V. 정책 대응방안	71
<붙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2001년~2008년)	82

< 요약 >

I. 검토배경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
 - 특히 2005년 이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유학·연수 증가 및 환율 하락 등으로 적자폭이 매년 30~50억달러 가량 확대
 - 최근에는 민간소비 부진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적자 확대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이 2% 내외에 이르는 등 대규모 적자가 지속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서비스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II. 서비스수지 부문별 현황

- 2005~2008년 상반기중 서비스수지 적자 누계는 총 625.3억달러로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등사용료 등 3개 부문이 적자추세를 주도(2007년중 GDP대비 비율은 2.1%)
- 서비스수지의 가장 큰 적자 부문은 여행수지(-435.4억달러)로서 해외출장 및 관광 등의 일반여행이 주된 적자 요인
- 사업서비스수지(-274.8억달러)는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등 기타 사업기술전문서비스 및 무역관련서비스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 특허권등사용료수지(-103.0억달러)는 전기전자통신(반도체, 휴대폰 등), 기계(자동차, 조선 등)산업 등의 수출 증가에 따른 로열티 지급 증대가 주된 적자 요인

서비스수지 부문별 현황

(억달러)

	2000	2005	2006	2007 08.1~6월	2005.1월~2008.6월	
서비스 수지	-28.5 <-0.6>	-136.6 <-1.7>	-189.6 <-2.1>	-205.7 <-2.1>	-93.4 <-2.0>	-625.3 <-2.0>
적자 서비스 부문	-59.6 <-1.2>	-183.7 <-2.3>	-228.4 <-2.6>	-266.3 <-2.7>	-134.9 <-2.9>	-813.3 <-2.6>
여행수지	-3.0	-96.0	-130.6	-150.9	-57.9	-435.4
사업서비스수지	-31.3	-61.2	-71.7	-83.8	-58.1	-274.8
특허권등사용료수지	-25.3	-26.5	-26.0	-31.6	-18.9	-103.0
흑자 서비스 부문	31.7 <0.6>	52.5 <0.7>	48.0 <0.5>	74.5 <0.8>	46.7 <1.0>	221.7 <0.7>
운수수지	26.4	37.3	26.7	38.9	29.5	132.5
금융서비스수지	5.1	14.2	20.0	34.4	15.8	84.2
건설서비스수지	0.1	1.0	1.3	1.2	1.4	5.0
기타서비스수지 ¹⁾	-0.5 <-0.1>	-5.4 <-0.1>	-9.2 <-0.1>	-13.9 <-0.1>	-5.2 <-0.1>	-33.8 <-0.1>

주 : 1) 보험, 개인·문화·오락, 컴퓨터 및 정보, 통신, 정부서비스 등
 2) < >안은 GDP대비 비율

Ⅲ.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

□ 2005년 이후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의 70%를 여행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열위, 국민들의 과도한 해외여행 선호 등이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에 기인

○ 지리적으로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높은 부동산가격 등으로 국내서비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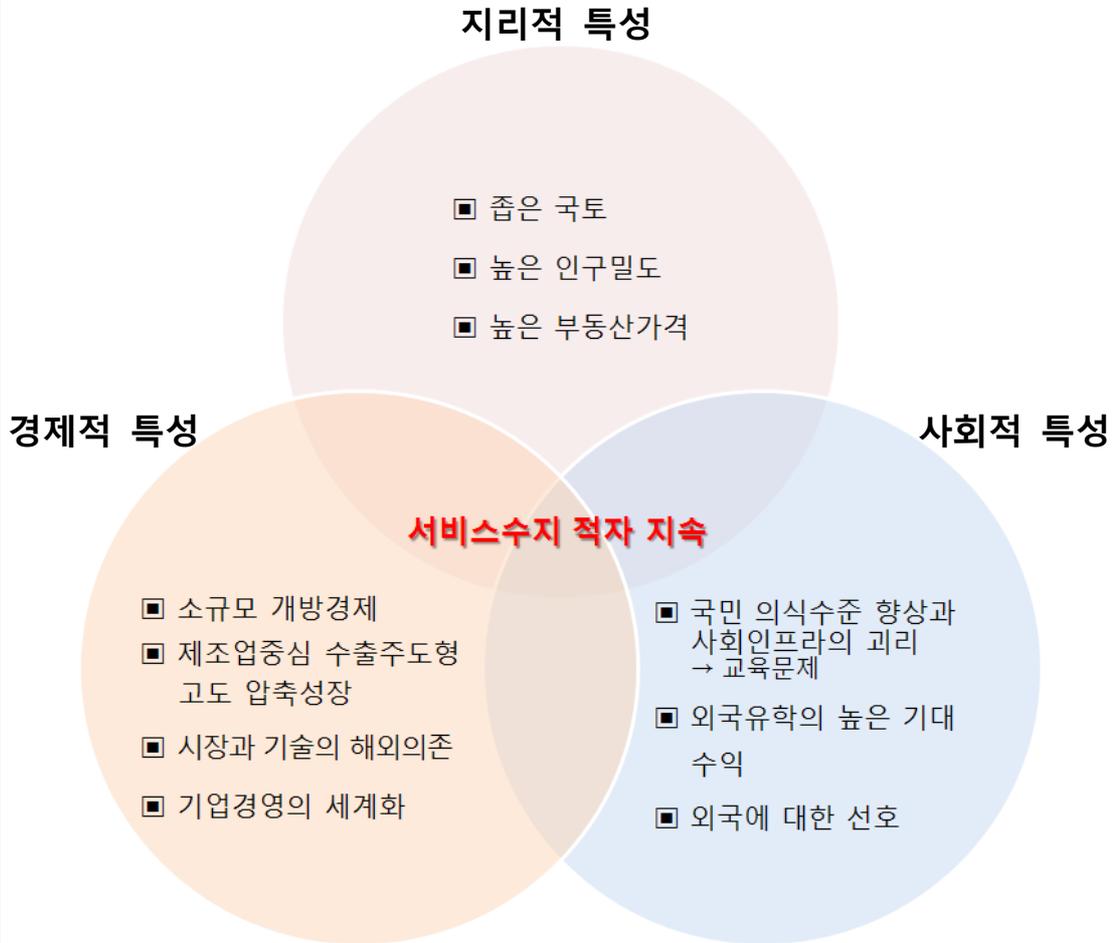
○ 경제적으로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및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 등으로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해외서비스 다소비형 경제구조가 고착화

-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비즈니스 출장 증가, 로열티 지급 증가, 광고서비스를 비롯 현지토착적 성격으로 인해 해외소비가 불가피한 사업서비스 등이 그 사례

○ 사회적으로도 교육문제로 대표되는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인프라의 괴리 및 외국유학의 높은 기대수익 등으로 해외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이러한 바탕 위에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



IV.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

- 서비스수지 적자*가 기초적 개선을 보인 나라 가운데 도시 국가 등을 제외한 8개국을 선정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기준

- 일본, 독일, 아일랜드 등 3개국은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규모는 축소 추세
- 한편 스웨덴, 네덜란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서비스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특히 스웨덴은 1998년 GDP대비 1.5%의 적자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2.7%의 큰 폭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인도 또한 1996년 1.1%의 적자에서 2006년 1.3% 흑자로 전환

주요국의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억달러, %)

	서비스수지 적자 최대 연도 및 규모				최근 서비스수지 상황			
	연도	적자(A)	GDP(B)	A/B	연도	수지(A)	GDP(B)	A/B
일본	1996	-622.8	46,384.3	-1.3	2007	-212.5	43,837.6	-0.5
독일	1999	-543.9	21,464.3	-2.5	2007	-402.9	33,221.5	-1.2
아일랜드	2002	-129.3	1,229.8	-10.5	2007	-54.8	2,585.7	-2.1
스웨덴	1998	-37.7	2,531.5	-1.5	2006	106.0	3,936.1	2.7
네덜란드	2001	-24.6	4,010.0	-0.6	2007	23.2	7,687.0	0.3
인도	1996	-39.3	3,637.5	-1.1	2006	118.2	8,772.2	1.3
호주	1989	-43.2	3,027.3	-1.4	2007	15.5	9,088.3	0.2
뉴질랜드	1992	-9.4	401.6	-2.4	2007	2.3	1,281.4	0.2
한국	2007	-205.7	9,699.0	-2.1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일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는 국내 첨단기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R&D 및 특허 등의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면서 관련서비스 수입이 증가

○ 한편 일본 여행수지의 큰 폭 개선은 장기 경기침체 및 엔화 약세 등에 따른 대외구매력 저하에 주로 기인

일본 서비스수지 (억달러)				독일 서비스수지 (억달러)			
	1996(A)	2007(B)	(B-A)		1999(A)	2007(B)	(B-A)
서비스수지	-622.8	-212.5	410.3	서비스수지	-543.9	-402.9	141.0
여행	-329.8	-171.7	158.1	사업	-71.8	93.7	165.5
특허	-31.5	65.5	97.0	특허	-20.3	-45.6	-25.3
사업	-110.1	-19.2	90.9	운수	-44.4	-92.6	-48.2
운수	-120.2	-70.2	50.1	여행	-376.5	-468.7	-92.3
기타	-31.2	-17.0	14.2	기타	-30.9	110.3	141.2

스웨덴 서비스수지 (억달러)				네덜란드 서비스수지 (억달러)			
	1998(A)	2006(B)	(B-A)		2001(A)	2007(B)	(B-A)
서비스수지	-37.7	106.0	143.7	서비스수지	-24.6	23.2	47.8
사업	-16.5	49.0	65.4	사업	-19.4	15.8	35.1
특허	1.8	23.5	21.7	특허	-5.8	2.0	7.8
운수	6.2	27.8	21.6	여행	-52.9	-56.5	-3.6
여행	-35.3	-24.1	11.2	운수	48.5	31.9	-16.6
기타	6.1	29.8	23.8	기타	4.9	30.0	25.1

□ **인도와 아일랜드**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어 사용의 이점과 풍부한 고급 노동력에 기반한 ICT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로 서비스 수입이 증가

아일랜드 서비스수지 (억달러)				인도 서비스수지 (억달러)			
	2002(A)	2007(B)	(B-A)		1996(A)	2006(B)	(B-A)
서비스수지	-129.3	-54.8	74.5	서비스수지	-39.3	118.2	157.5
컴퓨터정보	98.9	252.7	153.8	컴퓨터정보	..	269.9	228.4 ¹⁾
금융보험	21.1	59.0	37.9	사업	-7.9	17.4	25.4
사업	-141.7	-87.3	54.4	여행	19.2	15.8	-3.4
여행	-6.6	-25.4	-18.9	특허	-1.1	-8.4	-7.3
특허	-107.2	-235.6	-128.4	운수	-44.6	-175.7	-131.1
기타	6.1	-18.2	-24.3	기타	..	-0.9	2.3 ¹⁾

주 : 1) 2000 ~ 2006년중 증감액

- 호주는 영미문화권 영어사용국가라는 이점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으로, 뉴질랜드는 영화산업 진흥정책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로 서비스수지를 개선

호주 서비스수지			뉴질랜드 서비스수지				
	(억달러)			(억달러)			
	1989(A)	2007(B)	(B-A)	1992(A)	2007(B)	(B-A)	
서비스수지	-43.2	15.5	58.7	서비스수지	-9.4	2.3	11.7
여행	-2.2	80.8	83.0	여행	1.2	23.4	22.2
사업	-11.9	17.5	29.4	사업	-7.3	-7.3	0.1
특허	-6.4	-22.3	-15.9	특허	..	-4.2	-2.3 ¹⁾
운수	-16.3	-58.7	-42.4	운수	-1.8	-9.6	-7.8
기타	-6.4	-1.9	4.5	기타	..	-0.1	2.4 ¹⁾

주 : 1) 1995 ~ 2007년중 증감액

- 이들 나라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서비스수지 개선 자체를 목표로 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주로 기업들의 FD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화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주요국별 서비스수지 개선요인

국가	개선폭 ¹⁾	최대 개선 요인	정책 효과 ²⁾
일본	0.8%p(11년)	경기 침체 완화약세 해외직접투자 증가	일부 직접(Visit Japan 캠페인)
독일	1.3%p(8년)	해외직접투자 증가	간접(경쟁활성화)
스웨덴	4.2%p(8년)	해외직접투자 증가	간접(산업클러스터 육성)
네덜란드	0.9%p(6년)	해외직접투자 증가	간접(규제개혁)
아일랜드	8.4%p(5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간접(낮은 세율로 FDI 유치)
인도	2.4%p(10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간접(IT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호주	1.6%p(18년)	외국의 영어교육수요 증가	직접(유학생 유치확대 정책)
뉴질랜드	2.6%p(15년)	영화산업 진흥정책의 성과	직접(영화산업 진흥정책)

주 : 1)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기준, ()안은 서비스수지가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시점부터 최근(2006~7년)까지의 기간

2) 서비스수지 개선을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간접으로 구분

- 특히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핵심원천기술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서비스수지 개선을 초래한 것이 주요 특징
 - 자국 대기업 본사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자회사에 고도기술서비스를 활발하게 공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
- 이들 나라들은 모두 과거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보일 당시 또는 현재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자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상당 부분 기여
 - 대체로 자국이 처한 여건 및 대외환경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절히 추진한 것이 경제정책의 성공을 통한 간접적인 서비스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

	대외환경 변화	자국의 여건	대응정책조치	결과
아일랜드 인도	글로벌아웃소싱 증가	영어 사용 고급 노동력 풍부	세제/보조금 혜택 FDI 적극 유치	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호주	외국의 영어 교육수요증가	영어 사용 영미대비 낮은물가	유학생 유치 확대	
네덜란드	EU통합	자원 부족/고임금 소규모개방경제	정부규제 완화 Innovation 지원	

V. 정책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40여회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과 연계된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해 왔으나 서비스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지속

○ 특정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는 서비스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

□ 직접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에 대한 정책당국 및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국가에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심각한 경제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을 다소 자제할 필요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세계 11위 무역대국으로서 보다 큰 틀에서 세계경제를 조망하고 우리 경제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필요

⇒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의 기존정책들 가운데 효과적인 정책들을 선별하여 계속 충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필요

① 기술력 제고

-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가 최우선과제
 - 우리나라는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여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더라도 해외자회사에 제공할 만한 R&D 및 특허 등 고도기술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
 -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전액면제, 과학기술 각 분야에 정부주도 연구기관의 대폭 확충을 통한 사회진출 기반 마련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특단의 파격적 조치가 필요
 - 기업 차원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및 중소기업들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가 시행하고 있는 'Innovation Voucher'의 도입을 적극 검토

② 규제완화

- 규제완화 및 기업들의 경영관리비용부담 축소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
 -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ACTAL(규제위원회)/IPAL(규제감축기구)과 같은 독립적인 규제감독기구의 정부부처에 대한 권한 강화를 통해 규제완화의 구심점을 확립

③ 국내교육시스템의 만족도 및 기대수익 제고

□ 국내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과 높은 민간교육비 부담이 해외 유학·연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교육부문의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

○ 교육만족도의 획기적 제고와 공교육의 공적부담률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정책목표로 혁신을 추진

- 초·중·고교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학급당 및 교사당 학생수의 선진국 수준 감축**, 초·중등교육의 지나친 경쟁 지양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조기유학 수요를 억제

- 대학원중심대학의 육성 및 대학부문의 경쟁활성화로 **국내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확대

□ 이 밖에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인재등용에 있어서 국내학위 취득자와 해외학위 취득자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인재의 과도한 해외편향을 억제**

○ 국내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재의 육성 및 발굴이 주요 선결과제

④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영어 숙련도 제고

□ 아일랜드, 인도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필수로 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FDI 유치 및 대외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영어 숙련도 제고**가 필수적

○ 아일랜드와 인도가 ICT 및 금융서비스 등에서 FDI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어 사용의 이점이 매우 크게 작용

□ 장기적으로는 정부 국책사업으로 문자 및 음성인식 영어번역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

○ 이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자동번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책과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⑤ 기타 단기대책

□ 기타 국가 차원의 韓流마케팅 활성화, 한·중·일 합작 관광 패키지 상품 구성 및 공동 마케팅 등의 단기대책들도 검토해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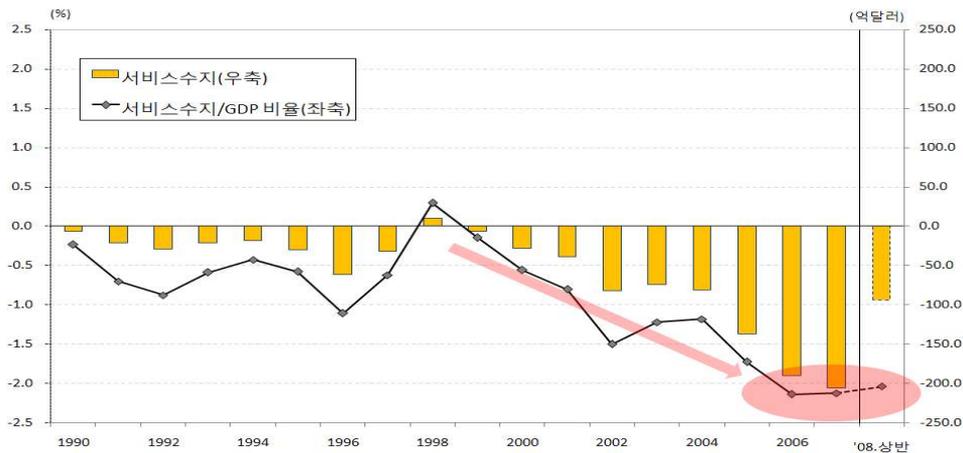
I. 검토배경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

* 그 이전에는 소득수준이 낮았던 데다 해외여행 제한, 용역계약 및 기술도입 허가제 등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발생이 제도적으로 억제

- 특히 2005년 이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유학·연수 증가 및 환율 하락 등으로 적자폭이 매년 30~50억달러 가량 확대
- 최근에는 민간소비 부진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적자 확대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이 2% 내외에 이르는 등 대규모 적자가 지속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서비스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II. 서비스수지 부문별 현황

□ 2005~2008년 상반기중 서비스수지 적자 누계는 총 625.3억달러로 여행(-435.4억달러), 사업서비스(-274.8억달러), 특허권등사용료(-103.0억달러) 등 3개 부문이 적자추세를 주도(2007년중 GDP대비 비율은 2.1%)

○ 운수(+132.5억달러), 금융서비스(+84.2억달러), 건설(+5.0억달러)서비스는 각각 해상화물운임 상승*, 외국인 주식거래규모 증가**, 해외건설수주 증가*** 등에 따라 흑자를 지속

	2000	2005	2006	2007
* 해상화물운임지수(MRI지수, 1972=100)	245.9	409.6	362.8	548.8
** 외국인 주식거래액(억달러)	1,133.4	3,338.8	4,880.1	7,727.2
*** 해외건설 수주액(억달러)	54.3	108.6	164.7	397.9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해외건설협회

○ 보험, 개인·문화·오락,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수지(-33.8억달러)는 GDP대비 0.1% 내외의 적자를 지속

서비스수지 부문별 현황

						(억달러)
	2000	2005	2006	2007 08.1~6월	2005.1월 ~2008.6월	
서비스 수지	-28.5 <-0.6>	-136.6 <-1.7>	-189.6 <-2.1>	-205.7 <-2.1>	-93.4 <-2.0>	-625.3 <-2.0>
적자 서비스 부문	-59.6 <-1.2>	-183.7 <-2.3>	-228.4 <-2.6>	-266.3 <-2.7>	-134.9 <-2.9>	-813.3 <-2.6>
여행수지	-3.0	-96.0	-130.6	-150.9	-57.9	-435.4
사업서비스수지	-31.3	-61.2	-71.7	-83.8	-58.1	-274.8
특허권등사용료수지	-25.3	-26.5	-26.0	-31.6	-18.9	-103.0
흑자 서비스 부문	31.7 <0.6>	52.5 <0.7>	48.0 <0.5>	74.5 <0.8>	46.7 <1.0>	221.7 <0.7>
운수수지	26.4	37.3	26.7	38.9	29.5	132.5
금융서비스수지	5.1	14.2	20.0	34.4	15.8	84.2
건설서비스수지	0.1	1.0	1.3	1.2	1.4	5.0
기타서비스수지 ¹⁾	-0.5 <-0.1>	-5.4 <-0.1>	-9.2 <-0.1>	-13.9 <-0.1>	-5.2 <-0.1>	-33.8 <-0.1>

주 : 1) 보험, 개인·문화·오락, 컴퓨터 및 정보, 통신, 정부서비스 등

2) < >안은 GDP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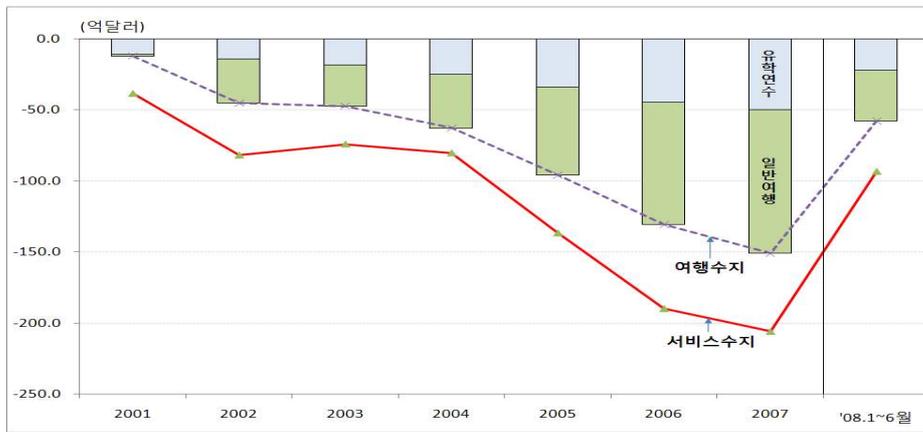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서비스수지의 가장 큰 적자 부문은 여행수지로서 일반여행과 유학·연수 가운데 해외출장 및 관광 등의 일반여행이 더 큰 적자 요인으로 작용

○ 2005 ~ 2008년 상반기중 여행수지 누적 적자 435.4억달러 중 일반여행수지 적자가 285.0억달러(65.4%), 유학연수수지 적자가 150.5억달러(34.6%)로 일반여행이 적자를 주도

- 일반여행수지 적자 가운데서는 관광목적 해외여행 등 기타여행(-249.9억달러, 87.7%)이 대부분이며 업무관련(-32.9억달러, 11.6%) 및 건강관련(-2.1억달러, 0.7%) 수지 적자는 미미

여행수지 적자 추이



여행수지 부문별 현황

	2000	2005	2006	2007	08.1~6월	(억달러) 2005.1월 ~2008.6월
■ 여행수지	-3.0	-96.0	-130.6	-150.9	-57.9	-435.4 <100.0>
· 유학연수수지	-9.3	-33.7	-44.9	-49.6	-22.3	-150.5 <34.6>
· 일반여행수지	6.4	-62.3	-85.8	-101.3	-35.6	-285.0 <65.4>
(업무관련)	..	-7.5	-14.7	-9.5	-1.2	-32.9 (11.6)
(건강관련)	..	-0.4	-0.6	-0.7	-0.4	-2.1 (0.7)
(기타여행)	..	-54.4	-70.4	-91.1	-34.0	-249.9 (87.7)

주 : 1) 2005년 항목별 세부내역은 EBOPS의 2006년중 항목별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2) < >안은 전체 여행에서 유학연수 및 일반여행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3) ()안은 일반여행에서 업무, 건강, 기타여행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그러나 최근 수년간 조기유학 및 어학연수를 중심으로 유학연수생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유학연수수지 적자도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문제
- 2000~2007년중 유학연수 지급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6.7%로 동 기간 중 전체 여행지급액 증가율(16.6%)을 크게 상회
- 동 기간중 전체 여행지급액에서 차지하는 유학연수 지급액의 비중도 13.4%에서 24.0%로 큰 폭 상승

국외유학생 및 유학연수 출국자 수

(억달러, 만명, %)

	2000	2001	2003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2000~2007)
전체 여행지급액	71.3 (46.1)	76.2 (6.8)	101.0 (-3.5)	154.1 (24.7)	188.5 (22.4)	208.9 (10.8)	16.6
유학연수 지급액	9.6 (5.8) <13.4>	10.7 (11.7) <14.0>	18.5 (30.0) <18.4>	33.8 (35.6) <21.9>	45.2 (33.5) <23.9>	50.1 (11.0) <24.0>	26.7
유학연수출국자수 ¹⁾	25.4 (27.0)	27.8 (9.3)	34.8 (1.2)	43.7 (10.9)	11.4 ⁴⁾
(조기유학) ²⁾	0.44 (139.1)	0.79 (80.7)	1.05 (3.6)	2.04 (24.0)	2.95 (44.7)	..	37.3 ⁵⁾
국외유학생수 ³⁾	..	15.0 (..)	16.0 (3.3)	19.2 (2.4)	19.0 (-1.0)	21.8 (14.5)	6.4 ⁶⁾
(대학원)	..	3.7	3.6	3.5	3.6	4.2	2.0 ⁶⁾
(대학)	..	7.2	6.2	6.6	7.8	8.2	2.2 ⁶⁾
(어학연수)	..	4.1	6.2	9.2	7.7	9.4	14.9 ⁶⁾

주 : 1) 출입국신고서상 출국목적은 유학연수로 표기한 출국자수. 2006년 7월 출입국 신고서 작성 폐지에 따라 출국목적별 출국자수 파악 불가
 2) 교육과학부의 각 학년도별 조기유학생 출국자수 자체 조사 결과
 3) 각 연도 4월 1일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유학생수(조기유학생 제외). 재외공관의 현지대학 조사 결과
 4) 2000 ~ 2005년중
 5) 2000 ~ 2006년중
 6) 2001 ~ 2007년중
 7)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8) < >안은 전체 여행지급액에서 유학연수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교육과학기술부

□ 2005 ~ 2008년 상반기중 사업서비스수지 누적 적자는 총 274.8억 달러로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128.4억달러) 및 무역관련서비스(-121.3억달러)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는 주로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관련서비스(-83.8억달러)가 적자를 주도

- 연구개발(-21.8억달러) 및 법률·회계·컨설팅·홍보서비스(-20.2억달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

○ 무역관련서비스*는 중개무역서비스(-119.6억달러)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 13쪽. <그림> '무역관련 서비스대가 지급구조' 참조

사업서비스수지 부문별 현황

						(억달러)
	2000	2005	2006	2007	08.1~6월	2005.1월 ~2008.6월
■ 사업서비스수지	-31.3	-61.2	-71.7	-83.8	-58.1	-274.8
· 운용리스 ¹⁾	-9.2	-6.5	-7.8	-9.1	-1.8	-25.2
· 무역관련	3.5	-18.5	-33.8	-43.6	-25.4	-121.3
(중개무역) ²⁾	..	-18.7	-34.1	-41.5	-25.2	-119.6
(기타무역) ³⁾	..	0.2	0.3	-2.1	-0.2	-1.7
·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	-25.6	-36.1	-30.2	-31.2	-30.9	-128.4
(법률·회계·컨설팅·홍보)	..	-6.4	-5.3	-5.3	-3.2	-20.2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	-24.4	-20.4	-24.1	-14.8	-83.8
(연구개발)	..	-7.5	-6.3	-5.8	-2.2	-21.8
(건축공학)	..	-3.3	-2.8	-2.7	-1.1	-9.9
(농업·광업·현지가공)	..	-1.1	-0.9	-0.2	0.2	-2.0
(관계기업간)	..	-1.8	-1.5	-0.7	-1.3	-5.3
(기타사업)	..	8.4	7.0	7.6	-8.4	14.6

주 : 1)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의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授受

2)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다시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의 거래차익 및 위탁가공무역 등에 따른 가공임의 授受 등

3)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관련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의 수수료의 授受

4) 2005년 항목별 세부내역은 EBOPS의 2006년중 항목별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특허권등사용료수지는 여행, 사업서비스에 이은 제3위의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으로 2005~2008년 상반기중 총 10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산업공정관리기법, 제품원천기술 등의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기타특허권등사용료수지 적자가 83.1억달러로 특허권등사용료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 프랜차이즈수수료 및 상표권료 등 독점판매권및유사권리수지(-19.9억달러)는 상대적으로 미미

특허권등사용료수지 부문별 현황

	2000	2005	2006	2007	08.1~6월	(억달러) 2005.1월 ~2008.6월
■ 특허권등사용료수지	-25.3	-26.5	-26.0	-31.6	-18.9	-103.0
· 독점판매권및유사권리 ¹⁾	..	-4.9	-4.9	-6.6	-3.5	-19.9
· 기타 특허권등사용료 ²⁾	..	-21.6	-21.2	-24.9	-15.4	-83.1

주 : 1) 프랜차이즈 수수료(franchising fees)와 등록된 상표(trademarks)의 사용에 대한 로열티
 2) 특허, 저작, 산업공정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원고,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음향물 등(cinematographic works and sound recordings)의 이용계약(licensing agreements)에 의거 수수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royalties and license fees)
 3) 2005년 항목별 내역은 EBOPS의 2006년중 항목별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산업별로는 반도체 휴대폰 등 전기전자통신산업이 전체 로열티 지급의 60%, 자동차 조선 등 기계산업이 15%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큰 폭 상승(2001년 2.8% → 2006년 10.5%)

산업별 기술도입액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기전자통신	16.2 <61.1>	16.8	19.0	23.2	26.6	28.9 <59.7>
- 정보통신	0.9 < 3.4>	1.3	1.8	3.2	3.7	4.0 < 8.3>
기계	4.0 <15.1>	2.9	4.9	8.2	7.4	7.2 <14.8>
서비스	0.7 < 2.8>	2.0	2.3	4.4	5.3	5.1 <10.5>
화학	2.2 < 8.3>	2.4	2.0	2.2	2.3	3.3 < 6.8>
기타	3.4 <12.7>	3.1	4.1	3.5	3.7	3.9 < 8.1>
기술도입액	26.4 <100.0>	27.2	32.4	41.5	45.3	48.4 <100.0>

주 : 1) < >안은 전체 기술도입액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
 자료 : 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 각 연도

Ⅲ.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

◆ 2005년 이후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의 70%를 여행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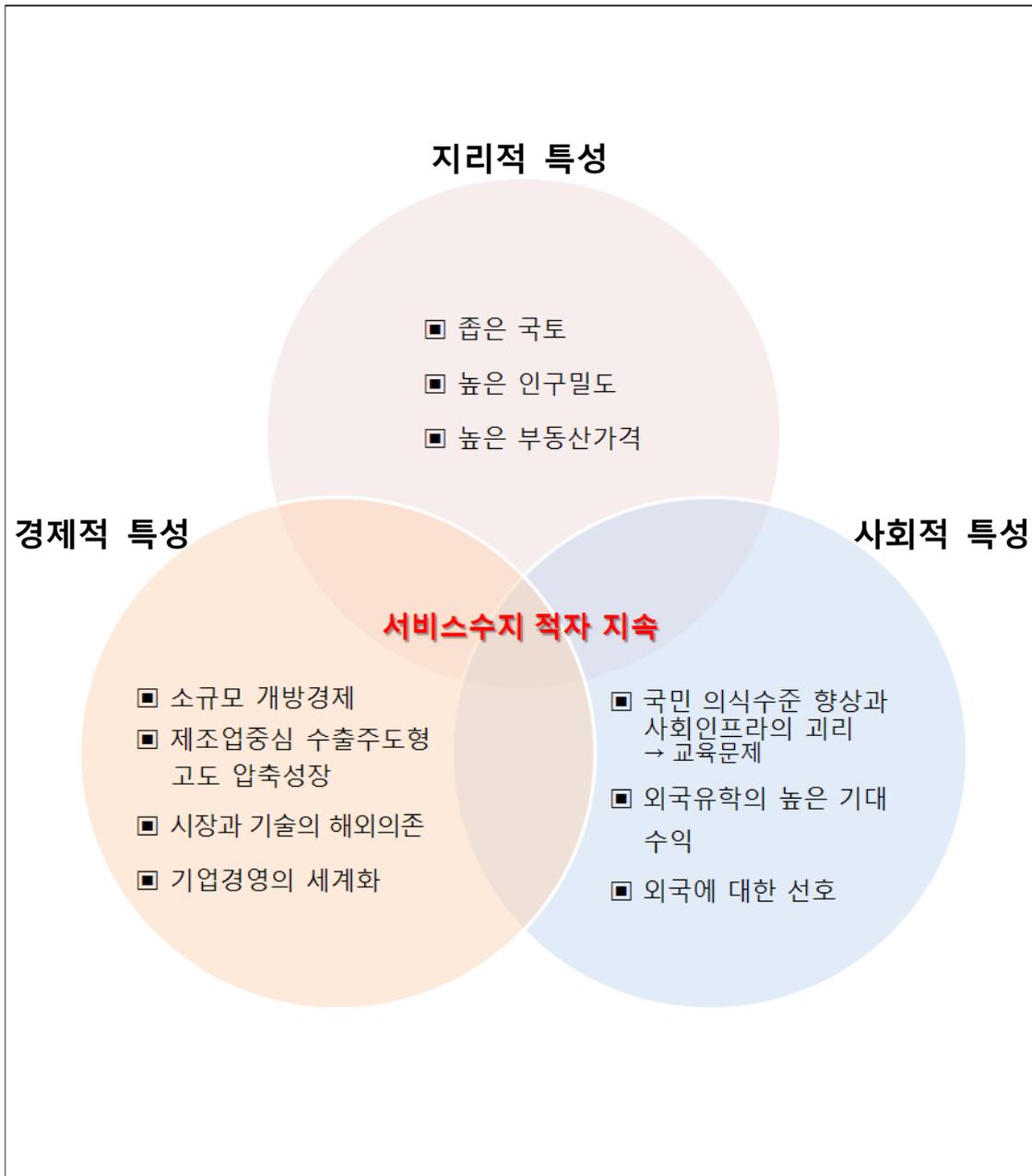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열위, 국민들의 과도한 해외여행 선호 등이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에 기인

- 지리적으로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는 국내여행서비스의 초과수요로 이어져 국내서비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일반여행)
- 경제적으로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및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 등으로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해외서비스 多소비형 경제구조가 고착화(여행전체, 특히, 사업)
- 사회적으로도 교육문제로 대표되는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인프라의 괴리 및 외국유학의 높은 기대수익 등으로 해외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일반여행, 유학연수)

⇒ 이러한 바탕 위에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



1. 지리적 특성

- 주요국 가운데 인구밀도(명/km²)가 200명이 넘고 1인당 GNI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여행수지 적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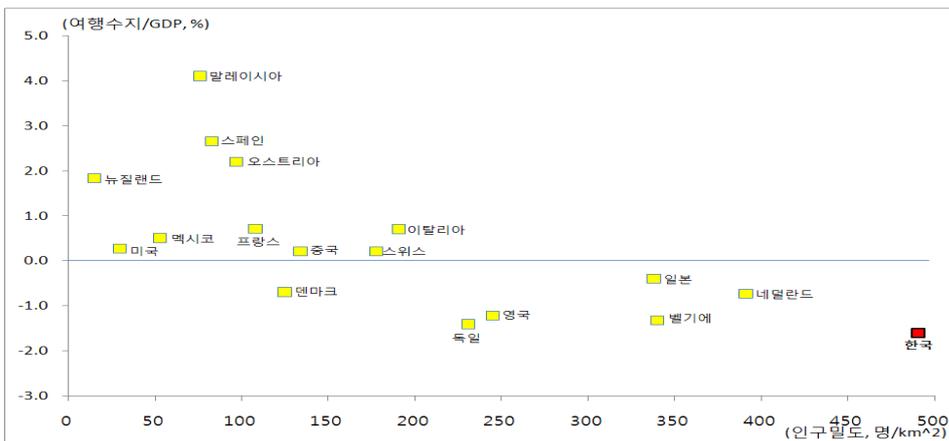
주요국의 인구밀도, 소득 및 여행수지 현황¹⁾

	인구밀도 (명/km ²)	1인당GNI ²⁾ (미달러)	출국자수 ³⁾ (만명)	출국자 ³⁾ 총인구 (%)	여행수지 (억달러)	GDP비율 (%)
한국	490	19,690	1,332	27.5	-150.9	-1.6
네덜란드	391	45,820	1,670	101.9	-56.5	-0.7
벨기에	340	40,710	785	75.3	-60.3	-1.3
일본	338	37,670	1,729	13.5	-171.7	-0.4
영국	245	42,740	6,954	114.9	-339.5	-1.2
독일	231	38,860	7,120	86.2	-468.7	-1.4
중국	134	2,360	4,095	3.1	74.5	0.9
프랑스	108	38,500	2,247	36.6	180.5	0.7
스페인	83	29,450	1,068	24.3	381.6	2.7
미국	30	46,040	6,366	21.0	372.2	0.3

주 : 1) 2007년 기준 2) World Bank 기준 3) 2006년 기준(한·중·일은 2007년)
 자료 : 통계청, IMF, World Bank, 중국 国家外汇管理局, 한국관광공사

-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소득수준은 절반에 불과하지만 인구밀도가 이들 국가의 2배에 이르며(490명/km²) GDP대비 여행수지 적자 비율이 높은 수준

주요국의 인구밀도와 여행수지 분포



자료 : IMF

-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국내여행 공급이 국민들의 여행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수요초과로 인해 여행서비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
- 전반적인 생활물가 수준이 높고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여름철 해수욕장 및 겨울철 스키장 등 성수기 관광지의 각종 혼잡비용과 바가지요금 사례 등도 이를 반영

도시별 생활물가 현황¹⁾

(달러)

순위	2005	2006	2007
1	도쿄	모스크바	모스크바
2	오사카	서울	런던
3	런던	도쿄	서울
4	모스크바	홍콩	도쿄
5	서울	런던	홍콩

주 : 1) 세계 143개 도시의 주택, 교통, 음식 등 200여개 항목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료 :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 한편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도 국내 서비스생산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공급측면에서 가격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총액은 GDP의 5.0배로 일본(3.4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한·일 부동산가격 총액¹⁾ 비교

	한 국 (2006년말, 조원)	일 본 (2005년말, 조엔)
토지	3,053.2 <3.6>	1,213.6 <2.4>
주거용건물	685.6 <0.8>	248.4 <0.5>
비주거용건물	470.5 <0.6>	247.2 <0.5>
부동산 합계	4,209.4 <5.0>	1,709.2 <3.4>

주 : 1) 한·일 양국의 국부통계 기준
 2) < >안은 GDP대비 배율
 자료 : 통계청, 일본 경제사회연구소(ESRI)

□ 우리나라는 인접한 중국, 일본에 비해 보유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도 곤란한 상황

○ 우리나라의 UNESCO 세계유산(World Heritage) 자원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등 모두 8개*로 세계 24위에 불과하고 특히 자연자원은 하나뿐이어서 세계 44위로 매우 낮은 수준

* ① 해인사 팔만대장경, ② 종묘, ③ 석굴암과 불국사, ④ 창덕궁, ⑤ 수원 화성, ⑥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⑦ 경주 유적지, ⑧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자연자원)

○ 반면 인접한 중국(35개, 3위), 일본(14개, 14위)에는 보다 많은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은 서구 선진국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택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놓여 있음

UNESCO 선정 세계유산의 국가별 분포

(개)

문화자원			자연자원			세계유산 자원 합계		
순위	국가	자원수	순위	국가	자원수	순위	국가	자원수
1위	이탈리아	40	1위	호주	15	1위	이탈리아	41
2위	스페인	35	2위	미국	12	2위	스페인	40
3위	독일	31	3위	중국	10	3위	중국	35
4위	프랑스	29	4위	러시아	8	4위	독일	32
5위	중국	25	5위	캐나다	8	5위	프랑스	31
6위	멕시코	24	6위	브라질	7	6위	영국	27
7위	인도	22	7위	스페인	5	7위	인도	27
8위	영국	22	8위	영국	5	8위	멕시코	27
9위	러시아	15	9위	인도	5	9위	러시아	23
10위	그리스	15	10위	콩고	5	10위	미국	20
15위	일본	11	16위	일본	3	14위	일본	14
22위	한국	7	44위	한국	1	24위	한국	8

자료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ttp://whc.unesco.org/pg.cfm?cid=31&l=en&&mode=table>

2. 경제적 특성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및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고도 압축성장 등으로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해외서비스 多소비형 경제구조가 고착화

○ 해외시장 상품 수출을 위한 마케팅 등을 위해서는 해외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여행 및 사업서비스 지급이 상품 수출과 함께 늘어나는 경제구조가 형성

- 특히 해외시장조사, 광고·홍보, 법률·회계서비스 등 기업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는 서비스의 현지토착적 성격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해외서비스 이용이 불가피*

* 예외적으로 Coca-Cola나 NIKE 등이 자국에서 제작한 광고를 해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국 광고산업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브랜드 파워 및 마케팅 전략에 주로 기인

○ 반도체 등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천기술력이 부족한 가운데 제품생산기술 향상에만 주력함에 따라 특허권등사용료도 제품생산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경제구조가 형성

- 특히 단기간의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R&D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기초기술 개발여건도 미비하여 핵심원천기술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

- 여행부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급액의 20%이상이 해외 비즈니스 목적 출국자의 경비지출로 추정되며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그 비중이 점차 상승 추세
- 비즈니스 목적 해외출국자수 비중이 2001년 18.1%에서 2007년에는 26.4%로 8.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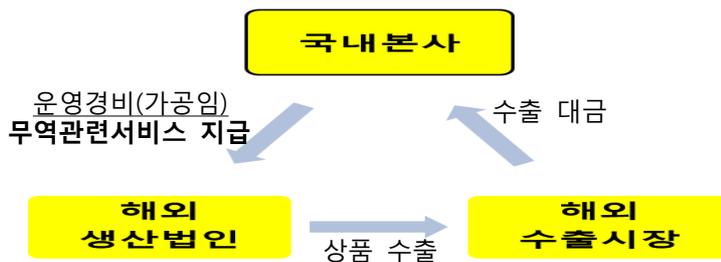
비즈니스 목적 해외출국자 비중 추이

	(%)			
	2001	2003	2005	2007
여가/위락/휴가	75.3	69.5	76.9	71.1
사업/전문활동	18.1	23.6	20.7	26.4
연수/교육	5.8	5.7	2.1	2.3
기타	0.8	1.2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 사업서비스의 경우 무역관련서비스수지 적자(2007년 -43.6억달러)가 가장 크고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수지(2007년 -31.2억달러)도 주요 적자 부문인데 모두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에 연계
- 무역관련서비스수지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해외 현지공장에 대한 운영경비(가공임) 지급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무역관련 서비스대가 지급 구조



⇒ 해외직접투자 확대 및 해외현지공장을 통한 해외시장 수출이 늘어날수록 무역관련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가 불가피

○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수지의 경우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사가 가장 큰 적자 부문인데 이 또한 국산제품의 해외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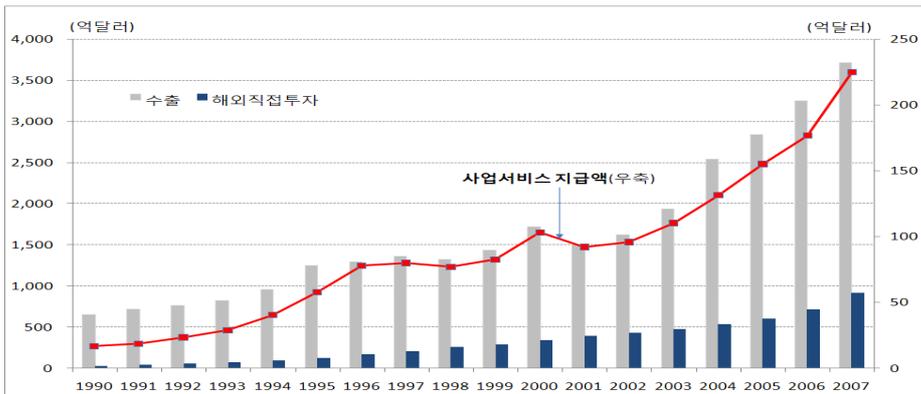
-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의 경우 현지시장의 트렌드 파악
 및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성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대체로 현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최적전략

- 또한 비용구조 측면에서도 전체 광고비 집행금액의 약
 80%가 TV 등 매체비용으로 국내대체가 곤란한 구조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전체
 사업서비스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

* 사업서비스 지급액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65, 해외직
 접투자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52

수출, 해외직접투자¹⁾, 사업서비스 지급액 추이



주 : 1) 수출입은행 신고 투자금액의 연도별 누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국수출입은행

□ 특허권등사용료의 대규모 지급 또한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한
 가운데 생산기술력이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데 주로 기인

- 5대 수출품목의 수출률(수출/총산출)은 69.8%로 제조업 평균(29.7%)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5대품목 제조업체의 절반(45.6%)은 핵심소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등 원천기술력이 매우 취약

* 16쪽. <참고 1> '주요 수출품의 핵심원천기술 해외의존 사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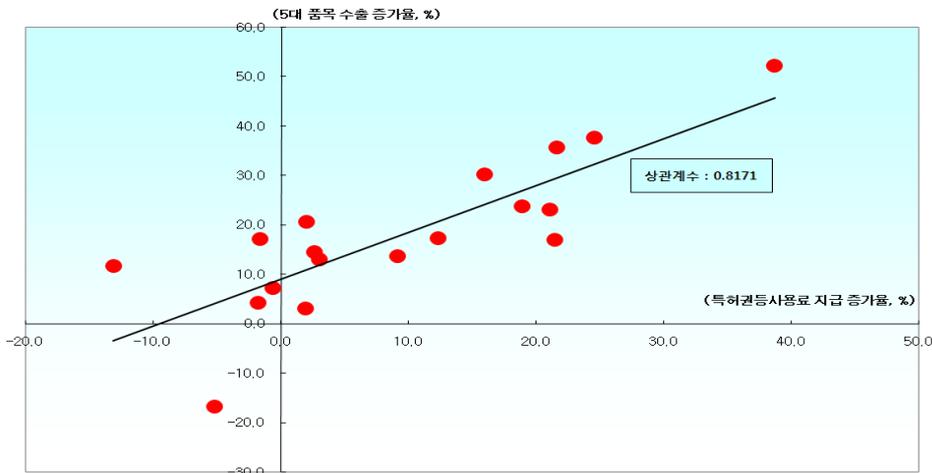
주요 제품의 수출 및 해외기술의존 현황

품목	산업연관표 품목구분 (404부문)	(억원, %)			
		산출액 ¹⁾ (A)	수출액 ¹⁾ (B)	수출률 ¹⁾ (B/A)	핵심부품 해외 의존기업 비중 ²⁾
반도체	집적회로(IC)	239,071	220,022	92.0	48.0
휴대폰	무선통신단말기	272,680	188,413	69.1	60.0
자동차	승용차	409,921	206,345	50.3	36.8
L C D	평면디지탈표시장치	200,054	140,126	70.0	48.9
선 박	강철제선박	144,601	129,292	89.4	29.4
수출상위 5대품목 소계		1,266,328	884,197	69.8	45.6
		<16.3>	<38.4>		
제조업 전체		7,750,940	2,303,322	29.7	

주 : 1) 2003년 기준 2) 2008년중 5대 수출제품 제조기업 500개사 조사결과
 3) < >안은 전체 제조업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대한상공회의소(2008a)

- 수출상위 5대 품목(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선박)의 수출 증가율과 특허권등사용료 지급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82로 매우 높은 수준

주요 품목¹⁾ 수출 증가율과 특허권료지급 증가율²⁾



주 : 1) MTI 4단위 기준 2) 1990 ~ 2007년중

<참고 1>

주요 수출품의 핵심원천기술 해외의존 사례

휴대폰

- 우리나라의 2007년중 퀄컴사에 대한 기술관련수입액(기술사용료+핵심부품수입)은 27.8억달러로 Qualcomm 1개사로부터의 기술관련수입액이 휴대폰단말기 전체 수출(186.4억달러)의 14.9%를 상쇄(Annual Report 2007, Qualcomm)

휴대폰 관련 주요 핵심원천기술 로열티 지급 현황

원천기술기업	주요 내용	비고
Qualcomm	CDMA 및 WCDMA Modem SW	이동통신 모뎀
Qualcomm	Sprint 사업자 UI	이동통신사업자 유저 인터페이스
Nokia	Symbian SmartPhone PC Sync SW, Flash Lite	스마트폰 솔루션
Ericsson	WCDMA Solution	

자료 : 기업공시자료

선박

-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대형 엔진, LNG선 특수탱크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연간 3억달러 내외의 로열티를 지급(2007년 국정감사자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선박 관련 주요 핵심원천기술 로열티 지급 현황

원천기술기업	주요 내용	비고
Man B&W Diesel	대형 디젤엔진 및 부품	생산마력 기준 지급
Wartsila Switzerland	대형 디젤엔진 및 부품	생산마력 기준 지급
Hitachi	인버터 SS300	순판매가 기준 지급
Gaz Transport & Technigaz	Cargo Tank/Handling System	Tank 용적 기준 지급
Global Santafe	P-10,000 Model Drill Ship	적당기준 지급

자료 : 기업공시자료

LCD

- 우리나라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높은 생산기술력 확보로 LCD 세계시장 점유율 1위(물량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재로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은 30% 정도에 불과(변종립, 2006)
 - 산업자원부의 「2007년 국산화실태 기술경쟁력 분석」 조사결과 LCD TV의 국산채용률은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1차 부품업체에 첨단소재를 공급하는 2차 부품업체의 국산화율은 30% 수준

3. 사회적 특성

- 소득 증가 및 세계화의 확산 등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욕구가 크게 향상된 반면 사회인프라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의 주요한 원인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문으로 교육수요자들은 선진적인 교육 수혜를 희망하는 반면, 교육시스템은 정책의 잦은 변경 및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 후진적인 행태를 답습함에 따라 유학연수 수요가 크게 증가
- 교육수요자의 국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더욱 하락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점= 100)

	학생	학부모	교사
초 등 학 교	64.4	69.4	62.4
중 학 교	52.0	60.8	56.9
실 업 계 고	50.2	58.0	55.6
일 반 고	47.0	57.3	54.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6)

- 반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39.5%로 OECD 평균(13.0%)의 3배, EU19개국 평균(8.9%)의 4배에 이릅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교육비 부담률

(%)

	전체		미취학아동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한 국	60.5	39.5	37.9	62.1	79.5	20.5	21.0	79.0
OECD	87.0	13.0	80.0	20.0	91.8	8.3	75.7	24.3
EU19 ¹⁾	91.1	8.9	87.9	12.1	93.7	6.3	84.0	16.0

주 : 1) EU 선진 15개국 이외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포함
 자료 : OECD(2007a)

○ 여행·관광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과 각종 안내표지판 문제 등이 아직도 상당수 여행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

- 외국인에 대한 한국여행시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혼잡과 안내표지판 문제가 각각 21.9%, 18.1%를 차지(200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중복응답 기준), 한국관광공사)

□ 한편 우리 사회에서 외국학위 취득자가 사회여론의 주도층을 형성하는 등 외국유학이 갖는 높은 기대수익도 유학연수 수요 증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19쪽. <참고 2> '소득계층별 외국유학 선택 행태' 참조

○ 7대 중앙일간지 게재 1,247편의 칼럼 필진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지식인의 70% 이상이 미국유학 출신으로 파악(김만흠 外, 2003)

○ 여타 정·관계* 및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외국학위 취득자가 상당한 우위를 점유하는 등 외국유학의 사회적 기대수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

* 역대 정권 각료의 50% 이상이 미국소재 대학 유학자인 것으로 조사(이코노미스트誌, 2007. 7.16)

** 한·일 주요 대학 교수들의 국내외 학위취득 비중을 보면 일본은 외국학위가 5%에 불과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62%(상경·사회계열은 92%)

한·일 주요 대학 교수들의 국내외 학위취득 현황

	외국학위 ¹⁾	국내학위	학위없음
서울대 ²⁾	62.3(51.0)	33.3	4.4
■상경·사회계열 ³⁾	91.5(80.6)	7.3	1.2
동경대 ²⁾	5.2(3.2)	63.5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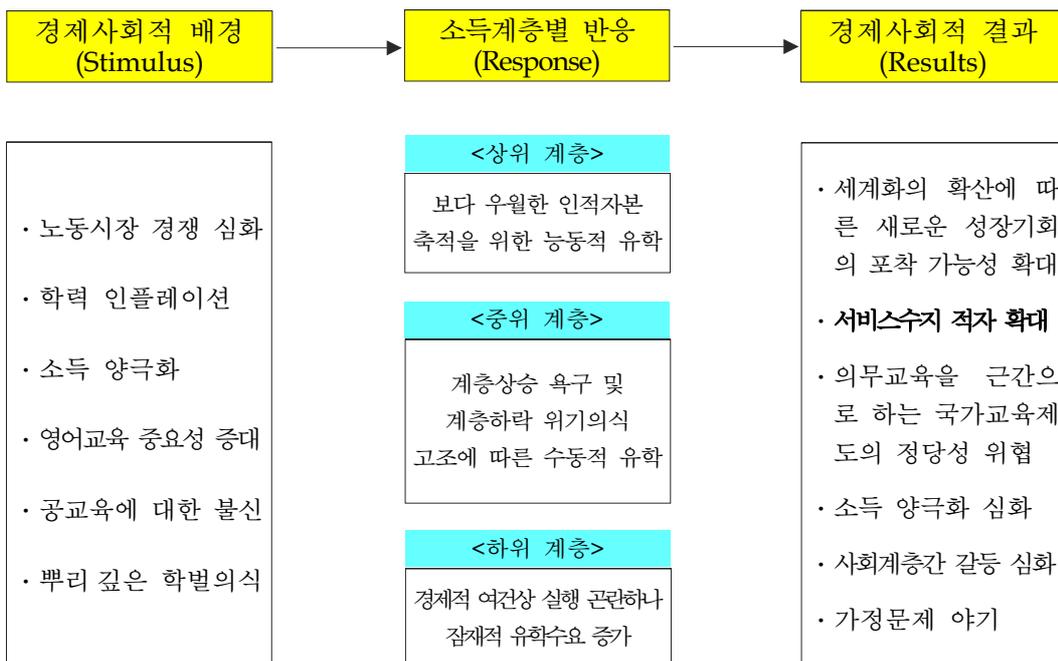
주 : 1) ()안은 미국박사학위 비중
 2) 2004년 기준 서울대(1,711명)와 동경대(4,165명) 전체 교수들의 학위취득국가를 조사한 결과(자료 : 시사저널, 2005. 1.25일자)
 3) 2005년 기준 서울대 상경·사회계열 교수 165명에 대한 조사결과(자료 : 교수신문, 2005. 3.26일자)

<참고 2>

소득계층별 외국유학 선택 행태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인 학력 인플레이션 및 영어교육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사회 각 계층에서 외국 유학연수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 이를 계층별로 보면 상위계층은 학력 인플레이션 및 공교육 불신에 대응하여 보다 우월한 인적자본 축적전략의 일환으로 능동적인 유학을 선택
 - 중위계층은 노동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계층상승 욕구 및 계층하락의 위기의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동적인 유학을 선택하지만 위기의식 고조에 따라 유학에 대한 선호도는 상위계층보다 더욱 강하게 표출
 - 그 결과 '기러기아빠'와 같은 세계적으로 특이한 사회현상의 대두
 - 하위계층은 경제적 여건상 실행은 곤란하지만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유학을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 계층으로 상존

외국 유학연수 증가의 메커니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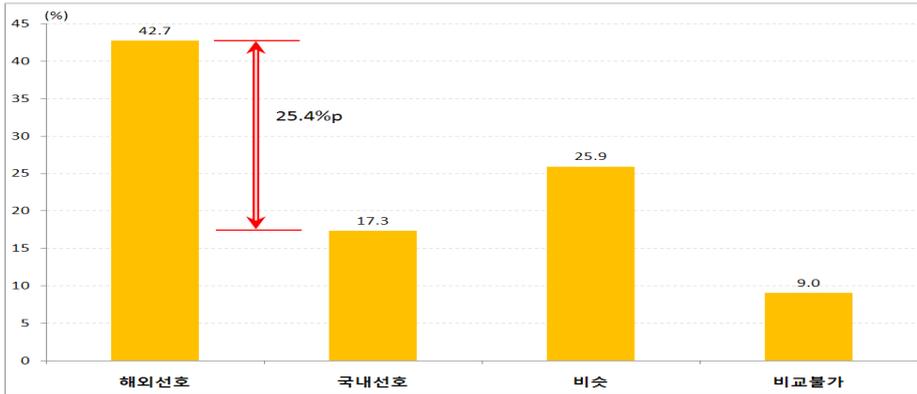


주 : 1) 손순중(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교육 관련 '탈'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제15권 제2호)을 토대로 재구성

□ 우리 국민들의 국내외 여행지 선택에서 나타나는 외국에 대한 선호 현상도 해외여행 증가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지속시키는 요인

○ 2007년 국민여행실태 조사결과 해외여행 선호도가 42.7%로 국내여행(17.3%)보다 2.5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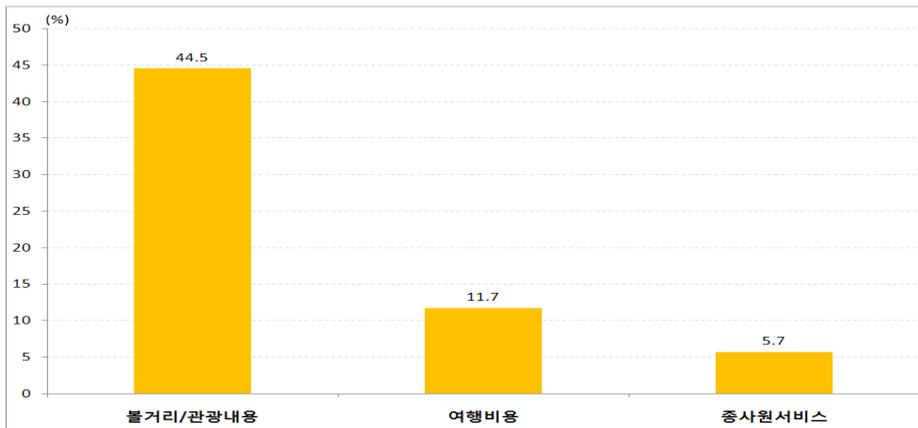
국내/ 해외여행 선호도 조사 결과¹⁾



주 : 1) 모름/무응답 5.1%
 자료 : 한국관광공사

○ 한편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국내여행의 취약점)로는 볼거리 및 관광내용의 문제를 가장 많이(44.5%) 지적

해외여행대비 국내여행의 취약점(상위 3개 기준)



자료 : 한국관광공사

IV.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

- 서비스수지 적자*가 기초적 개선을 보인 나라 가운데 도시국가 등을 제외한 8개국을 선정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기준

- 일본, 독일, 아일랜드 등 3개국은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규모는 축소 추세
- 한편 스웨덴, 네덜란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서비스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특히 스웨덴은 1998년 GDP대비 1.5%의 적자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2.7%의 큰 폭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인도 또한 1996년 1.1%의 적자에서 2006년 1.3% 흑자로 전환

주요국의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억달러, %)

	서비스수지 적자 최대 연도 및 규모				최근 서비스수지 상황			
	연도	적자(A)	GDP(B)	A/B	연도	수지(A)	GDP(B)	A/B
일본	1996	-622.8	46,384.3	-1.3	2007	-212.5	43,837.6	-0.5
독일	1999	-543.9	21,464.3	-2.5	2007	-402.9	33,221.5	-1.2
아일랜드	2002	-129.3	1,229.8	-10.5	2007	-54.8	2,585.7	-2.1
스웨덴	1998	-37.7	2,531.5	-1.5	2006	106.0	3,936.1	2.7
네덜란드	2001	-24.6	4,010.0	-0.6	2007	23.2	7,687.0	0.3
인도	1996	-39.3	3,637.5	-1.1	2006	118.2	8,772.2	1.3
호주	1989	-43.2	3,027.3	-1.4	2007	15.5	9,088.3	0.2
뉴질랜드	1992	-9.4	401.6	-2.4	2007	2.3	1,281.4	0.2
한국	2007	-205.7	9,699.0	-2.1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2.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사례

일본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일본의 서비스수지는 1996년 622.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212.5억달러 적자로 적자규모가 410.3억달러 축소
- GDP대비 적자규모도 1996년 이전에는 대체로 1%를 상회하였으나 2007년 0.5% 수준으로 크게 축소

일본 서비스수지 추이

	1990	1995	1996(A)	2000	2005	2006	2007(B)	(B-A)
서비스수지	-429.0 <-1.4>	-573.6 <-1.1>	-622.8 <-1.3>	-476.2 <-1.0>	-240.5 <-0.5>	-182.6 <-0.4>	-212.5 <-0.5>	410.3
여행	..	-335.4	-329.8	-285.1	-251.3	-184.1	-171.7	158.1
특허	..	-34.1	-31.5	-7.8	30.1	46.0	65.5	97.0
사업	..	-74.3	-110.1	-65.9	7.8	9.0	-19.2	90.9
운수	..	-134.1	-120.2	-95.0	-46.3	-51.9	-70.2	50.1
기타	..	4.3	-31.2	-22.4	19.2	-1.6	-17.0	14.2
서비스수입	413.8	652.7	677.1	692.4	1,102.1	1,173.0	1,291.2	614.0
여행	..	32.2	40.8	33.7	124.3	84.7	93.5	52.6
특허	..	60.1	66.8	102.3	176.6	201.0	232.3	165.5
사업	..	244.4	219.8	177.1	272.8	306.8	329.2	109.4
운수	..	225.1	216.0	256.0	357.5	376.5	420.2	204.2
기타	..	90.9	133.8	123.3	170.9	204.0	216.0	82.3
서비스지급	842.8	1,226.3	1,299.9	1,168.6	1,342.6	1,355.6	1,503.7	203.8
여행	..	367.6	370.6	318.8	375.6	268.8	265.1	-105.5
특허	..	94.2	98.3	110.1	146.5	155.0	166.8	68.5
사업	..	318.7	329.8	243.0	265.0	297.7	348.4	18.6
운수	..	359.2	336.2	351.0	403.8	428.4	490.4	154.2
기타	..	86.6	165.0	145.7	151.7	205.7	233.0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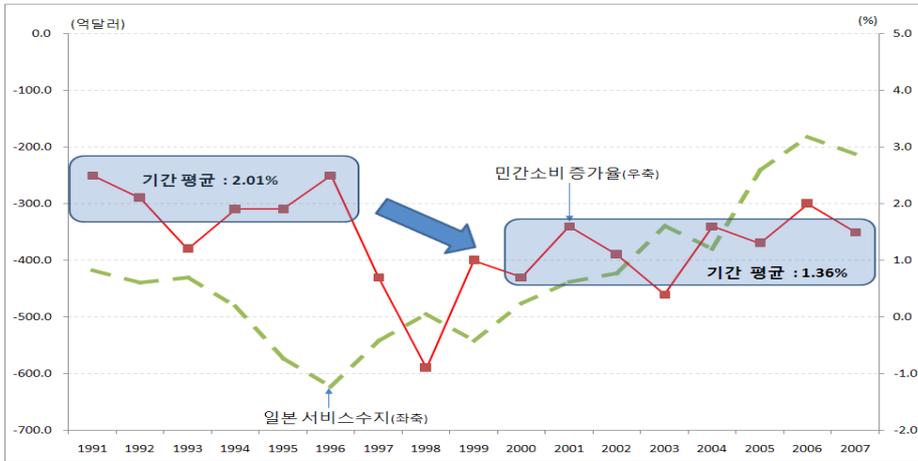
주 : 1)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부문별로는 여행수지(1996년 -329.8억달러 → 2007년 -171.7억달러) 및 사업서비스수지(-110.1억달러 → -19.2억달러)가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특허권등사용료 및 운수수지 등도 개선
 - 여행수지는 기간중 수입이 52.6억달러 늘었지만 지급이 더 크게(105.5억달러) 감소하여 지급 감소에 따른 수지개선이 주요 특징
 - 1996~2007년중 일본의 여행수지는 158.1억달러가 개선되었는데 이 중 수입 증가가 52.6억달러, 지급 감소가 105.5억달러로 지급 감소의 수지개선 기여율이 70%에 육박
 - 사업서비스수지는 지급이 소폭(18.6억달러) 늘어난 반면 수입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109.4억달러)하여 수지가 크게 개선
 - 운수수지 및 특허권등사용료수지도 수입이 크게 늘어남(운수 204.2억달러, 특허 165.5억달러)에 따라 큰 폭의 개선을 시현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1997년 이후 일본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엔화가치 하락,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관련서비스 수입 증대에 주로 기인
 - 1990년대 이후 장기 경기침체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2% 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해외소비도 부진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
 - 일본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991~1996년 평균 2.0% 증가에서 2000년대 이후 평균 1.4%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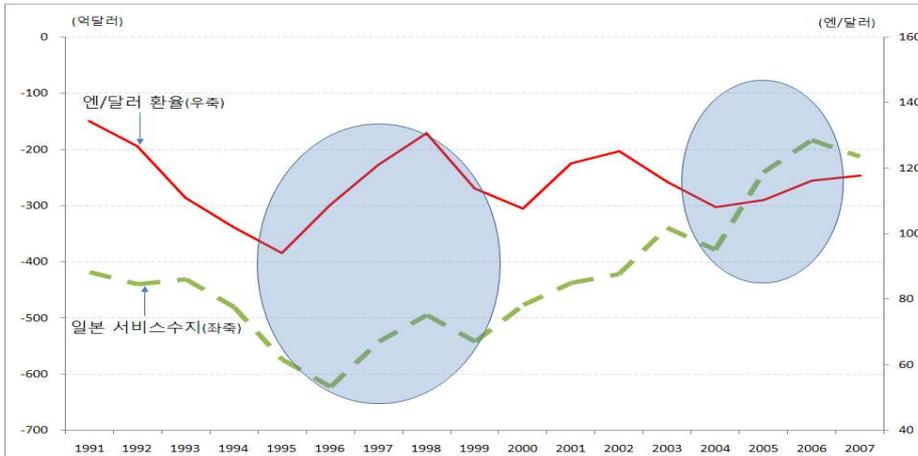
민간소비 증가율 및 서비스수지



자료 : 일본 ESRI,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1996년 이후 엔화가치 절상 추세가 절하로 반전되면서 서비스수지도 개선 추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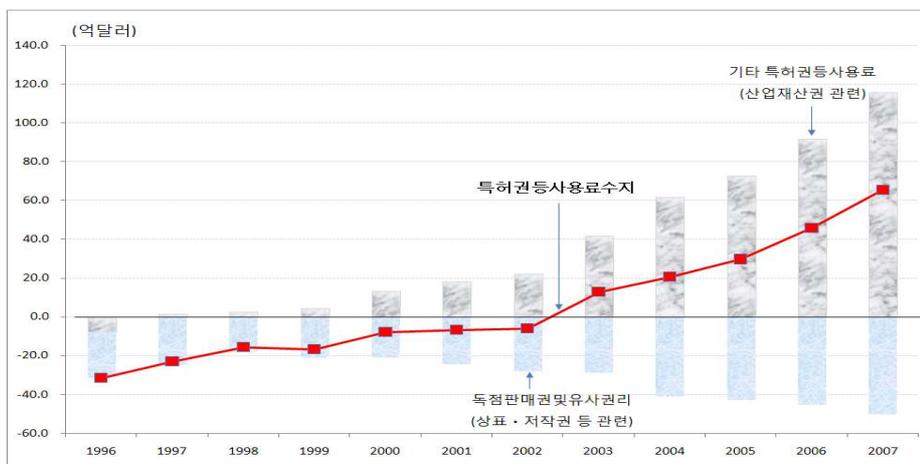
엔/달러 환율 및 서비스수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해외생산 증가 및 현지 생산을 통한 수출 등 삼국간교역 증대도 특허·사업서비스·운수수지 개선에 기여
- 자동차 등의 해외생산 증가에 따라 국내본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원천기술 제공 증가(특허권등사용료 수입 증가)로 2003년 이후 특허권등사용료수지가 흑자로 전환

일본의 특허권등사용료수지 추이



자료 : 일본은행

- 해외현지생산을 통한 삼국간교역 증대로 중개무역 (Merchanting) 수수료 수입이 늘어 무역관련서비스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 사업서비스수지도 흑자로 전환
- 해외생산을 위한 본국의 소재·부품 수출 및 현지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등을 통한 교역증대와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운수수입이 늘어나 운수수지 적자가 크게 축소

- 과거 미주·유럽 등 선진국 단체관광 위주의 관광행태에서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근거리 관광으로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패턴이 변화한 것도 수지개선의 한 요인
 - 지역별로는 미주·유럽 등 원거리 고비용 국가 위주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주변국 여행 중심으로 변화
 - 여행상품별로는 해외여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체관광 위주의 상품에서 한류스타 미팅, 쇼핑 등 특정 목적을 갖는 테마관광 중심으로 변화
- 기타 9·11테러(2001년), 발리 테러(2002년), SARS(2003년), 이라크 전쟁(2003년), 쓰나미(2004년), 아이치 박람회(2005년) 등 국내외 사건 및 이벤트 등도 서비스수지 개선에 기여
 - 특히 1998년, 2001년, 2003년중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테러 및 전쟁 등 세계경제 불안정 등으로 출국자수가 각각 -5.9%, -9.0%, -19.5% 감소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일본은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가 제조업 비교우위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이를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 통상 제조업 위주로 성장한 후발국들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바 이는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간주

- 일본의 서비스수지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은 주로 여행부문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분야에 집중
 - 일본 운수성은 1996년 「Welcome Plan 21」 을 수립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홍보 강화 및 관광비용 경감 등을 추진
 - 이후 2000년 「新 Welcome Plan 21」 등의 후속 대책도 일관되게 추진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3년부터 외국인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Visit Japan Campaign」 을 전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
 - 최근 들어서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중
 - 2006.12월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국토교통성 산하에 『관광청』 을 신설할 예정
- 한편 일본은 민간 주도로 국제위상 강화 및 여행산업 발전 등을 위해 2010년까지 일본인 해외출국자수를 2천만명까지 확대한다는 Visit World Campaign도 동시에 추진
 - 일본여행업협회(JATA)는 정부와의 협의 하에 ‘여권갓기(Get a Passport) 캠페인’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일본인의 해외출국도 촉진함으로써 국내외 양방향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

독 일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독일의 서비스수지는 1999년 543.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402.9억달러로 적자규모가 141.0억달러 축소
- GDP대비 적자규모도 1990년대 후반 2.5% 내외에서 2007년 1.2% 수준으로 크게 축소

독일 서비스수지 추이

	(억달러, %)							
	1990	1995	1999(A)	2000	2005	2006	2007(B)	(B-A)
서비스수지	-223.9	-521.5	-543.9	-511.9	-420.2	-335.0	-402.9	141.0
	<-1.4>	<-2.1>	<-2.5>	<-2.7>	<-1.5>	<-1.1>	<-1.2>	
사업	-23.5	-57.5	-71.8	-54.6	46.0	108.0	93.7	165.5
특허	-18.1	-27.9	-20.3	-27.6	-4.4	-19.6	-45.6	-25.3
운수	-23.0	-38.9	-44.4	-51.7	-49.2	-93.6	-92.6	-48.2
여행	-247.1	-422.2	-376.5	-342.1	-450.7	-412.3	-468.7	-92.3
기타	87.8	25.0	-30.9	-35.9	38.0	82.5	110.3	141.2
(건설)	3.1	-6.6	-4.5	-6.9	38.0	46.9	32.4	36.9
(금융)	4.5	18.7	10.7	15.4	20.9	28.1	41.0	30.2
(컴퓨터정보)	-4.5	-5.6	-15.8	-11.7	-2.3	4.3	5.1	20.9
서비스수입	626.6	802.3	832.7	822.4	1,616.8	1,855.7	2,121.0	1,288.3
사업	139.2	200.1	220.5	232.9	486.5	587.8	651.5	431.0
특허	19.9	31.3	31.1	29.1	70.1	58.9	51.4	20.3
운수	147.6	198.6	200.3	199.5	384.7	422.4	515.0	314.7
여행	143.3	180.4	182.3	186.1	291.2	328.9	360.9	178.6
기타	176.6	191.9	198.5	174.7	384.4	457.9	542.2	343.7
서비스지급	850.5	1,323.8	1,376.6	1,334.3	2,037.1	2,190.8	2,523.9	1,147.3
사업	162.7	257.6	292.3	287.5	440.5	479.8	557.7	265.5
특허	38.0	59.2	51.4	56.7	74.4	78.4	97.0	45.6
운수	170.6	237.5	244.8	251.3	433.9	516.0	607.7	362.9
여행	390.4	602.6	558.8	528.2	741.9	741.2	829.7	270.9
기타	88.8	166.9	229.3	210.6	346.3	375.3	431.9	202.5

주 : 1)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부문별로는 사업서비스수지(1999년 -71.8억달러 → 2007년 +93.7억달러)가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한 가운데 건설(-4.5억달러 → +32.4억달러), 금융(+10.7억달러 → +41.0억달러), 컴퓨터·정보(-15.8억달러 → +5.1억달러) 서비스도 꾸준한 개선을 시현
- 사업서비스는 과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93.7억달러 흑자로 돌아서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폭(141.0억달러)보다 더 큰 폭(165.5억달러)의 개선을 시현
- 한편 대표적 적자 부문인 운수수지(-44.4억달러 → -92.6억달러) 및 여행수지(-376.5억달러 → -468.7억달러)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기조를 지속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독일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술경쟁력이 있는 독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사업서비스 등의 수입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새로운 시장 개척, 고객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독일 주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R&D 등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이 증가

독일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달러)
2003	2004	2005	2006
58.2	148.3	555.2	794.3

자료 : OECD

○ 건설서비스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적자를 보였으나 M&A에 따른 기업규모 확대* 및 선진국 및 중동 등 신흥시장국 건설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흑자로 전환

* 독일 최대건설회사인 Hochtief社는 1999년 미국 Turner社를 인수하면서 세계 정상급 건설회사로 부상하였으며, 이후 해외사업비중을 계속 확대

** 독일의 세계건설시장 점유율(2006년)은 11.5%로 미국(18.4%), 프랑스(15.3%)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자료 : Engineering News Record)

○ 금융서비스수지의 개선은 유로화 출범 이후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 기능이 강화된 데 주로 기인

- 유럽중앙은행(ECB)의 프랑크푸르트 유치를 바탕으로 독일 분데스뱅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유로화거래의 결제중심센터로 발전

- 외환거래 및 OTC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수수료 수입도 크게 증가

○ 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개선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AP* 등의 성장 호조세에 주로 기인

* 주요 기업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세계시장 점유율(2006년)
(%)

SAP(독일) ¹⁾	Oracle(미국)	MS(미국)	Sage(미국)	Infor(미국)
9.5	5.9	2.4	2.3	1.9

주 : 1) SAP(독일 발도르프 소재)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회사로 세계 50여개국에 30,000여명의 직원을 고용

자료 : BITKOM(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 SAP의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 收入 추이

	(억유로)				
	2003	2004	2005	2006	2007
소프트웨어	21.5	23.6	27.4	30.0	34.1
기타소프트웨어관련 ¹⁾	25.7	28.2	32.1	35.9	40.2
합계	47.2	51.8	59.6	66.0	74.3

주 : 1) Support, subscription, and other software-related services

자료 : SAP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독일은 세계 최대의 서비스수지 적자국이지만 서비스수지 적자를 자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 독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이는 독일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비교우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영국과 미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평균 78% 정도이며, 제조업 비중은 16% 정도인데 독일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이보다 10% 정도 낮고 제조업 비중은 10% 정도 높은 편이나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다고 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은 아니며 서비스산업 비중의 황금률 또는 최적 서비스산업 비중 개념은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

· 특히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의 경우 지리적 요인, 기후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파악

- 또한 독일이 보유한 상품수출 세계 1위국의 지위는 상품기획, R&D, 마케팅, A/S 등 제조업 부문에 내포된 강한 서비스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 국제수지 통계 편제상의 한계*로 인해 독일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점도 있음

* 국제수지 기준 서비스교역통계는 4가지 서비스교역 형태*(WTO기준 : 국경간공급(mode1), 해외소비(mode2), 상업적주재(mode3), 자연인이동(mode4)) 중에서 국경간공급(mode1)만을 포함

- 만약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상업적주재 등의 서비스교역을 모두 포괄할 경우 독일의 서비스수지는 현재 통계치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독일 당국은 주요 적자부문인 운수수지 및 여행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또한 독일경제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거나 자연조건에 의한 것일 뿐 문제점은 아니라고 인식
 - 운수수지 적자의 경우 독일이 해운선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활발한 대외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지표로 해석
 - 여행수지의 경우 여행관련 인프라스트럭처는 국제기준에 비춰 아무런 손색이 없으나 단지 기후 및 지형조건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식
- 따라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으며 최근에는 여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 재정건전화, 시장경쟁 활성화 등의 일반 원칙에 집중
 - 노동부문 개혁(Hartz Reform)을 통해 실업수당의 수혜대상을 축소시킴으로써 노동공급 증가의 유인을 확대
 - 2003 ~ 2007년중 공공부문 축소, 사회보장혜택 및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p 감축
 - 에너지, 철도, 네트워크산업, 도소매 등의 규제완화 및 공공조달시장의 경쟁 확대 등의 경쟁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

아일랜드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아일랜드의 서비스수지는 2002년 129.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54.8억달러로 적자규모가 74.5억달러 축소
- GDP대비 적자규모도 2000년대초 10%를 상회하던 수준에서 2007년 2.1% 수준으로 크게 축소

아일랜드 서비스수지 추이

(억달러, %)

	1990	1995	2000	2002(A)	2005	2006	2007(B)	(B-A)
서비스수지	-17.3 <-3.6>	-62.9 <-9.4>	-127.3 <-13.2>	-129.3 <-10.5>	-115.2 <-5.7>	-93.4 <-4.3>	-54.8 <-2.1>	74.5
컴퓨터정보	72.1	98.9	191.5	203.7	252.7	153.8
금융보험	3.9	21.1	39.0	50.9	59.0	37.9
사업	-12.7	-31.6	-119.1	-141.7	-151.9	-140.2	-87.3	54.4
여행	3.0	1.8	0.9	-6.6	-12.9	-14.9	-25.4	-18.9
특허	-5.5	-25.9	-76.9	-107.2	-184.5	-197.9	-235.6	-128.4
기타	-8.3	6.1	3.6	5.0	-18.2	-24.3
서비스수입	34.4	50.2	185.4	299.0	599.2	691.9	889.9	590.9
컴퓨터정보	74.9	104.5	195.9	210.4	261.2	156.7
금융보험	31.9	76.8	146.4	188.1	221.9	145.1
사업	7.7	13.9	19.1	52.1	162.3	187.2	247.5	195.4
여행	14.6	22.1	26.2	31.0	47.8	53.7	61.4	30.4
특허	0.4	1.3	6.4	2.8	7.7	10.3	11.1	8.3
기타	27.0	31.8	39.1	42.2	86.8	55.0
서비스지급	51.8	113.0	312.7	428.3	714.4	785.3	944.7	516.4
컴퓨터정보	2.8	5.5	4.4	6.7	8.5	3.0
금융보험	28.0	55.7	107.4	137.2	162.9	107.2
사업	20.4	45.4	138.1	193.8	314.2	327.4	334.8	141.0
여행	11.6	20.3	25.2	37.5	60.7	68.6	86.8	49.3
특허	5.9	27.2	83.3	110.0	192.2	208.2	246.7	136.7
기타	35.3	25.7	35.4	37.2	105.0	79.3

주 : 1)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부문별로는 컴퓨터·정보서비스(2002년 +98.9억달러 → 2007년 +252.7억달러)가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한 가운데 금융·보험서비스(+21.1억달러 → +59.0억달러)도 일부 기여
- 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는 흑자규모가 배증하면서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
- 금융·보험서비스도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흑자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
- 반면 특허권등사용료수지(-107.2억달러 → -235.6억달러)는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소폭 흑자를 보이던 여행수지는 2000년대 이후 적자로 돌아서 최근 적자가 확대(-6.6억달러 → -25.4억달러)되는 추세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아일랜드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컴퓨터·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 데 주로 기인
- FDI를 통해 Intel, MS, Oracle, IBM, Yahoo, Google 등 세계 유수의 IT서비스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컴퓨터시스템의 설계·개발, 프로그래밍 등을 통한 서비스 수입이 크게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의 결과 아일랜드 ICT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고용의 72.3%를 차지하는 등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

아일랜드 ICT 산업부문의 고용 현황(2006년)

	(명, %)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계
Software	11,545 <42.1>	15,866 <57.9>	27,411 (39.6)
IT Services	1,119 <38.3>	1,803 <61.7>	2,922 (4.2)
Web	316 <8.5>	3,404 <91.5>	3,720 (5.4)
Electronics/IC Design	494 <20.8>	1,881 <79.2>	2,375 (3.4)
ICT Storage Media	0 <0.0>	329 <100.0>	329 (0.5)
Electronics Hardware	3,011 <14.3>	18,087 <85.7>	21,098 (30.5)
Semiconductor Production	164 <2.7>	5,884 <97.3>	6,048 (8.7)
Automation/Control Services	1,393 <91.6>	128 <8.4>	1,521 (2.2)
ICT Distribution	987 <47.7>	1,081 <52.3>	2,068 (3.0)
Financial Services Unit of ICT Company	0 <0.0>	544 <100.0>	544 (0.8)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154 <27.8>	399 <72.2>	553 (0.8)
Shared Services of ICT Company	0 <0.0>	622 <100.0>	622 (0.9)
Total	19,183 <27.7>	50,028 <72.3>	69,211 (100.0)

주 : 1) < >안은 각 세부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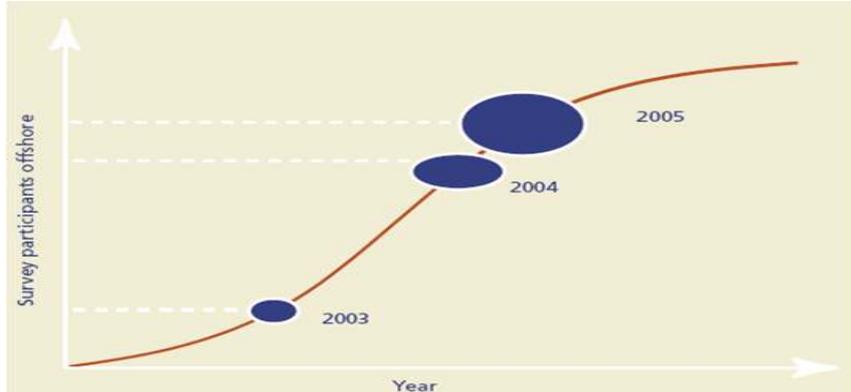
2) ()안은 전체 ICT산업에서 각 세부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Forfas(2007a)

- 반면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입(收入)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소재 다국적 IT기업들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특허권등사용료로 유출
- 그러나 특허권등사용료 지급보다 컴퓨터·정보서비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서비스수지가 개선
- 1987년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설립 이후 금융부문 FDI 증가로 금융서비스산업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보험서비스수지 흑자가 꾸준히 확대
- 1990년대 이후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경쟁 심화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경영구조조정 및 서비스의 해외아웃소싱이 크게 증가

-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이용서비스의 범위도 크게 확대

금융서비스 해외아웃소싱 추이



주 : 타원의 크기는 해외아웃소싱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나타냄
 자료 : Deloitte(2005)

- 10%의 낮은 법인세율과 낮은 수준의 규제에 기반한 IFSC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금융서비스 해외아웃소싱수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수입이 크게 확대
- 현재 IFSC에는 글로벌 금융기관 및 다국적기업 재무관리 사업부문들이 입주하여* 은행·보험·펀드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아일랜드의 금융서비스 수입 증대를 주도

* Citibank, Merrill Lynch, ABN Amro, AIG, JP Morgan 등 세계 50대 은행 및 20대 보험회사의 절반 이상과 350여개 글로벌기업 재무관리 부문이 입주

아일랜드의 국제금융서비스 부문별 고용 현황

	비중(2007)	2004	2005	2006	2007
Funds	<42.3>	7,317	8,144	9,227	10,599
Banking	<44.7>	7,571	8,008	10,902	11,191
Insurance	<13.0>	2,722	2,943	3,027	3,268
Total	<100.0>	17,610	19,095	23,156	25,058

자료 : 2008 Finance Dublin Yearbook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최근 아일랜드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지식기반경제 하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얻어진 부수적인 효과이며

고용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한 서비스수지 적자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

○ 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현재 GDP의 4%에 달하는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를 자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ICT 및 금융부문 FDI가 늘어난 결과 수지가 개선

- 과거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GDP대비 10% 내외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 또한 소규모개방경제인 아일랜드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치른 자연스런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

- 실제로 아일랜드의 구조적 실업률(structural rate of unemployment)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과거 10여년간 유로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큰 폭 하락

아일랜드의 구조적 실업률¹⁾ 추이

	1991	1996	2003	(%) 2007 ²⁾
아일랜드	14.3	11.1	5.7	4.6
Euro Area	8.6	8.8	8.1	7.4

주 : 1) Richardson, P. et al.(2000)의 추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물가안정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기준

2) 2007년 수치는 실업자/경제활동인구 비율

자료 : OECD(2004), E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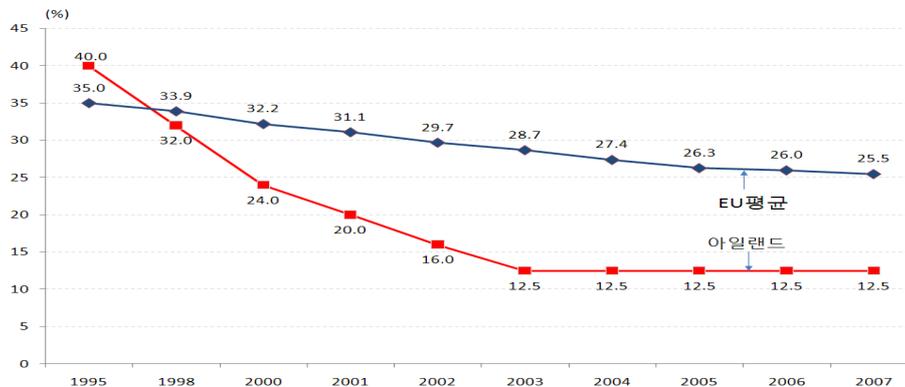
○ 아일랜드 정부는 과거 흑자를 보이던 여행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사례에 대해서도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인식

□ 한편 아일랜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의 실현 및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

○ 아일랜드는 거대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운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인접국들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을 적극 유치

- 특히 외국기업, 수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10%의 세율을 적용(EU집행위와의 협상결과 2006년부터는 일반 법인세율 12.5%를 적용)

아일랜드 및 EU의 법인세율 추이



자료 : ESRI

○ 또한 1987년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를 설립한 이래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펀드에 대한 비과세 등을 바탕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을 적극 유치

- 세제혜택 이외에도 국제금융서비스발전전략 추진(1999년) 등 IFSC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의지 표명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획득
- 금융규제에 있어서도 중앙은행, DETE*, ODCA**, RFS*** 등으로 나뉘어진 규제체계를 중앙은행 내부에 금융감독국(IF SRA)을 설치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2003년)

* 기업통상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

** 소비자사무국(Officer of Director of Consumer Affairs)

*** 신용조합감독기구(Registrar of Friendly Societies)

<참고 3>

IFSC 설립의 초기 추진과정

- 1987년 신임 Charles Haughey 총리는 과도한 실업 및 국가부채로 침체에 빠진 아일랜드의 경기회복방안의 일환으로 더블린 선창가(dockland) 도심재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IFSC 설립을 적극 추진
- 아일랜드 금융계의 대부호 Dermot Desmond와의 금융서비스산업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총리 산하에 IFSC Committee를 설치
- Finance Act를 통해 IFSC 입주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의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등 외국금융기관들에 입주 유인을 제공
- 산업개발청(IDA)은 리서치 및 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세계 금융기관들을 찾아다니며 IFSC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외국금융기관들의 선호에 따라 유연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
- 중앙은행 및 재무부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IFSC의 기반을 다졌으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IFSC로의 전격 이전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

* 이는 '아일랜드 국내금융기관들이 IFSC로 이전하지 않는데 외국금융기관들이 굳이 들어갈 만한 유인이 있는가'라는 외국금융기관 유치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회의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작용

⇒ 아일랜드의 IFSC 초기 추진과정은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비전과 열정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낸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 산업개발청(IDA)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촉진

IDA의 주요 투자 인센티브

지원 유형	주요 내용
■ 자본보조금	: 설비, 공장, 건물, 토지 등의 구입 지원
■ 임차료보조금	: 임차자산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
■ 고용보조금	: 정규직 고용 1인 추가시 2회에 걸쳐 보조금 지급
■ 교육훈련보조금	: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프로그램별 보조금 지급
■ 연구개발보조금	: 공정혁신, 신제품개발, 디자인 등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 타당성조사보조금	: 사업타당성 소요 경비의 50% 지급
■ 상업차관우대	: IDA 공동출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대금리 적용

- 지식기반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FDI유치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한편 직업교육센터(FAS)를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재육성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행

- 산업개발청(IDA)은 경제발전예 따라 FDI 유치의 중심목표를 **【1단계】 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산업** → **【2단계】 자본집약적 하이테크 제조업** → **【3단계】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서비스** 위주로 유연하게 변경
- 직업교육센터(FAS)는 경제사회연구소(ESRI)와 공동으로 지식기반경제 이행에 따른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기술고도화를 위한 직업재교육*을 실시

* 저임금·저기술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ICT 등 고도기술부문 무상교육 등

□ 한편 세제 및 보조금에 기반한 단순한 외자 유치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선발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이 크게 작용

○ 아일랜드는 유럽지역내 영국을 제외한 유일한 영미법 체계의 영어사용국가라는 이점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진기지로 기능할 수 있었음

○ 아일랜드가 최초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절세목적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후의 기업들은 집적의 이익(benefits of agglomeration)*을 찾아 아일랜드로 이동

* 정보교환, 시설의 공동 이용, 시장의 공동 관리 등 개별기업의 규모는 크지 않아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모여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율성 향상의 경제효과

- 특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집적의 이익이 큰 ICT, 금융, 제약산업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집중

⇒ 이는 최근 유럽지역 전반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가 향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가

스웨덴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스웨덴의 서비스수지는 1998년 37.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 흑자로 전환되고 2006년 106.0억달러의 큰 폭 흑자를 기록

○ GDP대비 서비스수지도 1998년 -1.5%에서 2006년 +2.7%로 큰 폭 개선

스웨덴 서비스수지 추이

	(억달러, %)						
	1990	1995	1998(A)	2000	2005	2006(B)	(B-A)
서비스수지	-33.3 <-1.4>	-15.9 <-0.6>	-37.7 <-1.5>	-31.9 <-1.3>	76.7 <2.1>	106.0 <2.7>	143.7
사업	-4.9	0.2	-16.5	-11.2	33.8	49.0	65.4
특허	-1.8	-1.2	1.8	3.8	19.7	23.5	21.7
운수	8.8	0.9	6.2	7.2	29.8	27.8	21.6
여행	-33.8	-19.8	-35.3	-39.8	-33.9	-24.1	11.2
기타	-1.6	3.8	6.1	8.2	27.2	29.8	23.8
서비스수입	137.3	156.2	179.5	202.5	429.5	503.7	324.2
사업	18.0	25.7	45.0	64.8	156.0	186.5	141.6
특허	5.6	8.9	11.1	12.7	34.8	39.6	28.5
운수	48.1	49.5	47.8	43.6	87.1	92.6	44.8
여행	29.2	34.7	41.9	40.6	73.8	91.3	49.4
기타	36.4	37.5	33.7	40.7	77.6	93.7	59.9
서비스지급	170.6	172.2	217.2	234.4	352.7	397.7	180.5
사업	22.8	25.4	61.4	76.0	122.2	137.6	76.1
특허	7.4	10.0	9.4	9.0	15.1	16.2	6.8
운수	39.3	48.5	41.5	36.4	57.3	64.7	23.2
여행	63.0	54.5	77.2	80.5	107.7	115.4	38.2
기타	38.0	33.7	27.7	32.5	50.4	63.8	36.2

주 : 1)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부문별로는 사업서비스수지(1998년 -16.5억달러 → 2006년 +49.0억 달러)의 흑자 전환이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
 - 특허권등사용료수지(+1.8억달러 → +23.5억달러) 및 운수수지(+6.2억달러 → +27.8억달러)도 흑자규모가 확대
 - 고질적인 적자 부문인 여행수지(-35.3억달러 → -24.1억달러)도 여행수입 증가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소폭 축소
- 한편 스웨덴은 1990년대초 운수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여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
 - 1998 ~ 2006년중 서비스 수입이 연평균 13.8% 증가하여 지급증가율(7.9%)을 상회
 - 특히 사업서비스와 특허권등사용료의 수입이 각각 연평균 19.5% 및 17.2%씩 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스웨덴의 사업서비스수지 및 특허권등사용료수지 개선은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대로 對자회사 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인 사업서비스수지는 대기업들의 해외생산 증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R&D 및 무역중개 등의 서비스 공급이 늘어난 것이 주된 개선 요인

○ 특허권등사용료 및 컴퓨터·정보서비스의 경우에도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입(收入)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를 비롯한 스웨덴의 첨단기술 클러스터의 발전 또한 서비스 수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에릭슨, IBM, Nokia, MS 등 IT기업 및 첨단연구소, 대학이 입주하여 산학연 협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산업 클러스터

□ 이는 스웨덴의 대기업 비중이 유럽 평균보다 높은 데다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이들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

○ 그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 비중도 38.6%로 유럽 평균(33.6%)보다 5%p 가량 높은 수준

스웨덴의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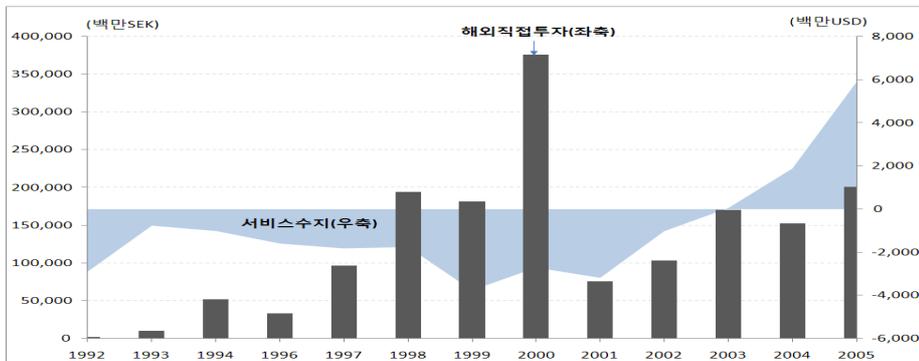
	(천명, %)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스웨덴	1,380	869	2,249
	<61.4>	<38.6>	<100.0>
EU-15	80,793	40,955	121,748
	<66.4>	<33.6>	<100.0>

자료 : IKED(2007)

○ 한편 1990년대 후반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회사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 서비스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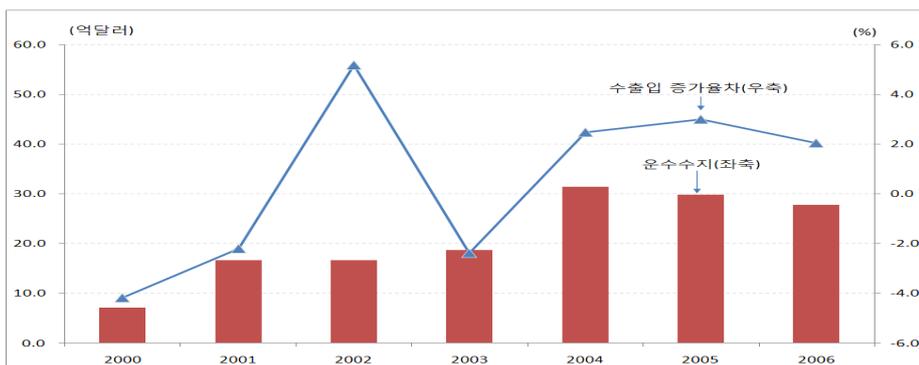
- 업종별로는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및 전기전자 업종의 해외투자에 따른 중개무역수수료, 로열티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 및 서비스수지



- 운수수지의 개선은 북유럽 지역내 해상 물동량 증가 및 해상 운임 상승 등에 주로 기인
- 스웨덴은 세계적인 해운강국은 아니지만 특정 품목에 특화된 해운선대를 보유한 데다 지역내 수출물량 증가율이 수입물량 증가율보다 높았던 데 주로 기인

스웨덴의 북유럽역내¹⁾ 수출입 증가율차 및 운수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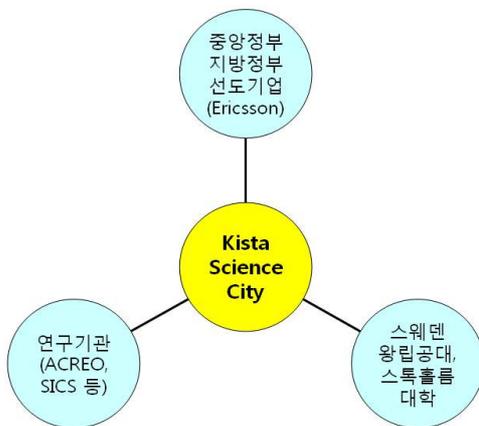


주 : 1)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3개국 기준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스웨덴의 서비스수지가 적자에서 큰 폭 흑자로 돌아섰으나 이는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기는 곤란
- 스웨덴의 서비스수지가 큰 폭 개선된 데에는 해외투자 증가에 수반하여 사업서비스 및 특허권등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조직된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이 일부 기여
- 스톡홀름 인근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에 Ericsson, IBM, MS, HP, Nokia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관학 협동 연구체제가 구축

Kista Science City 개요



- 정부가 대학 및 정부출자연구소 유치, 도시기반 조성,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에 적극 개입·지원
- ABC(Arbete일자리, Bostad주거지, Center소도심)원칙을 적용, 체계적 개발
- 선도기업(Ericsson)의 입주로 무선이동통신과 무선 인터넷 분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는 연쇄효과
- Ericsson 등 IT분야 700개 기업 집중
⇒ 스웨덴의 이노베이션 메카로 부상

네덜란드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네덜란드의 서비스수지는 2001년 24.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 이후 소폭 흑자로 전환

○ GDP대비 서비스수지도 2000년대 초반 -0.5 ~ -0.6% 수준에서 최근에는 +0.3 ~ +1.1%로 개선

네덜란드 서비스수지 추이

	1990	1995	2000	2001(A)	2005	2006	2007(B)	(B-A)
							(억달러, %)	
서비스수지	-4.1 <-0.1>	11.5 <0.3>	-20.2 <-0.5>	-24.6 <-0.6>	67.8 <1.1>	27.3 <0.4>	23.2 <0.3>	47.8
사업	4.7	4.9	-11.6	-19.4	33.6	24.8	15.8	35.1
특허	-6.7	-6.4	-3.3	-5.8	1.7	2.6	2.0	7.8
여행	-32.2	-51.0	-49.9	-52.9	-56.9	-57.1	-56.5	-3.6
운수	20.1	54.3	39.0	48.5	65.0	32.2	31.9	-16.6
기타	10.0	9.6	5.7	4.9	24.4	24.8	30.0	25.1
(정부) ¹⁾	1.1	1.2	-4.4	-4.2	10.1	12.8	16.2	20.4
서비스수입	293.0	459.2	493.2	512.5	800.9	822.7	898.5	386.1
사업	79.4	121.6	155.3	166.0	299.2	314.5	329.7	163.8
특허	10.9	23.7	21.7	17.4	38.7	41.3	43.9	26.5
여행	41.5	65.8	72.0	67.1	104.5	113.8	134.6	67.5
운수	129.4	180.2	167.9	176.2	214.5	205.8	225.0	48.8
기타	31.8	67.9	76.4	85.8	144.0	147.3	165.2	79.5
서비스지급	297.1	447.7	513.4	537.1	733.1	795.4	875.4	338.2
사업	74.8	116.7	166.9	185.4	265.7	289.7	314.0	128.6
특허	17.5	30.1	25.0	23.2	36.9	38.6	41.9	18.7
여행	73.8	116.7	121.9	119.9	161.4	170.9	191.1	71.1
운수	109.3	125.9	128.9	127.8	149.6	173.6	193.2	65.4
기타	21.7	58.3	70.7	80.8	119.6	122.6	135.2	54.4

주 : 1) UN 및 NATO의 군사활동 등과 관계된 것으로 민간 서비스교역과는 무관

2)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부문별로는 사업서비스(2001년 -19.4억달러 → 2007년 +15.8억달러)가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한 가운데 만성 적자를 보이던 특허권등사용료수지(-5.8억달러 → +2.0억달러)도 소폭 흑자로 전환
- 정부서비스(-4.2억달러 → +16.2억달러)도 2001 ~ 2007년중 흑자 규모가 20.4억달러 늘어 서비스수지 개선에 상당한 기여
- 반면 전통적인 흑자 부문인 운수수지(+48.5억달러 → +31.9억달러)는 흑자규모가 소폭 축소되었으며, 여행수지(-52.9억달러 → -56.5억달러)는 적자를 지속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네덜란드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해외자회사로부터의 R&D 등 사업서비스 수입 증가 및 로열티관련세제의 특수성에 주로 기인
-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필립스, 로열더치셀, 유니레버, ING 등 네덜란드 대기업*들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R&D를 중심으로 한 사업서비스 및 특허 등의 공여에 따른 수입이 크게 증가

* 주요 네덜란드 기업들의 글로벌화 현황(2005년)

(억달러, 천명, 개)

	해외자산	해외매출	해외고용	해외지사수
Royal Dutch Shell	1,513	1,840	92	507
Philips	329	365	133	337
Unilever	257	292	157	171

주 : 1) ()안은 GDP대비 비율

네덜란드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달러)

	1990	2000	2005	2006
해외직접투자 잔액	1,069	3,055	6,299	6,526
	(34.8)	(79.0)	(100.9)	(98.5)

주 : 1) ()안은 GDP대비 비율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특허권등사용료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에는 대기업들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원천기술 공여 이외에도 로열티 수수에 대한 비과세조치에도 일부 기인

유럽국가들의 특허권 로열티관련 세율(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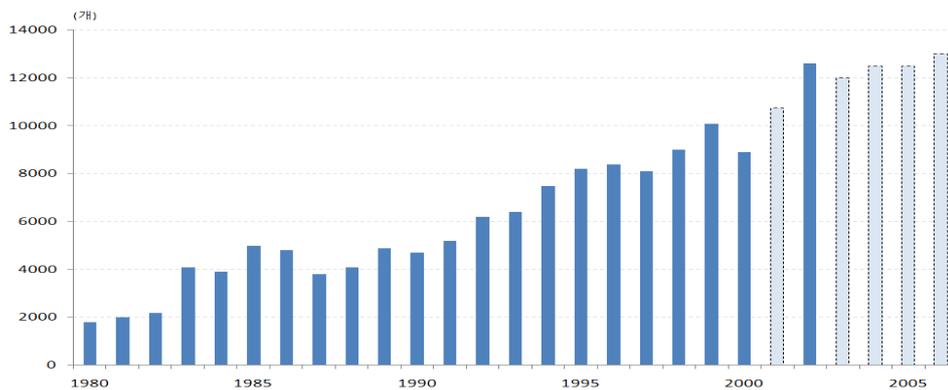
t ≤ 10%	10% < t ≤ 20%	20% < t ≤ 30%	30% < t
네덜란드(0.0%) 룩셈부르크(0.0%) 헝가리(0.0%) 몰타(0.0%) 사이프러스(5.0%)	벨기에(15.0%) 에스토니아(15.0%) 슬로바키아(19.0%) 오스트리아(20.0%) 아일랜드(20.0%)	독일(21.1%) 영국(22.0%) 체코(25.0%) 슬로베니아(25.0%) 이탈리아(26.3%) 핀란드(28.0%) 스웨덴(28.0%) 덴마크(30.0%)	프랑스(33.3%)

자료 : IBFD(2005)

- 네덜란드는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회사(SPE)*가 많이 진출

* 이처럼 로열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Royalty Conduit Company'로 구분하며, 네덜란드 당국은 이들 회사가 금융 기능을 수반함에 따라 'Special Financial Institution'으로 통칭

네덜란드 소재 SPE 기업수 추이



주 : 열은 점선은 네덜란드 통계청(CBS), 재무부 등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추정
 자료 : De Nederlandsche Bank

- 2001 ~ 2005년중에는 세계교역량 증가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운수수지 흑자가 늘어났던 것도 동 기간중 서비스수지 개선에 기여
 - 다만 2006년에는 네덜란드 대표 해운선사인 P&O Nedlloyd가 덴마크 Maersk Line에 인수됨에 따라 운수서비스 수입이 크게(전년대비 약 25%) 감소하면서 운수수지 흑자도 축소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지난 10여년간 네덜란드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EU 경제통합의 원활한 달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비스수지 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대책은 거의 없었음
 - 특정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도 1990년대 이후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정책으로 전환
 - 결국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이에 따른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서비스 수입 증가가 서비스수지의 개선을 주도
- 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네덜란드 정부는 2003년 별도의 개혁감독기구인 ACTAL* 및 IPAL**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 규제비용 25% 절감을 목표로 추진한 규제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획득

* ACTAL : The Dutch Advisory Board on Administrative Burden

** IPAL : Interministerial Burden Reduction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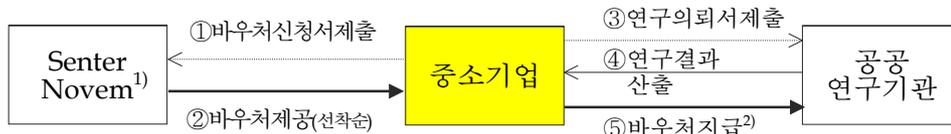
- 1994년 이후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급속한 진전을 실현
 - 이전에는 부처간 책임의 불명확, 다양한 규제들간의 연관관계 파악 실패 등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
 - 2003년 이후에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ACTAL을 설치하고 부처별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 내에 IPAL을 설치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구심점을 확립한 것이 주요
- 규제의 비용과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의회-기업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 2003년 기준 규제의 비용을 16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동 비용의 25% 감소를 목표로 설정
- 비즈니스 창업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조세·노동·정부기관 각종 보고서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부여
- 네덜란드 정부는 다시 2011년까지 추가 25%의 규제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

□ 또한 중소기업들의 혁신 촉진 등을 위한 이노베이션 바우처 제도 시행 및 산업기반으로서의 디자인교육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 것도 서비스수지 개선에 간접적인 영향

○ 2004년 네덜란드 경제부(MOEA)는 중소기업들의 R&D 지원 및 공공연구기관의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 지향 등을 목적으로 이노베이션 바우처(Innovation Voucher) 제도를 도입

* 정부가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연구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제도

Innovation Voucher 제도의 메커니즘



주 : 1)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기술혁신지원센터
 2) Voucher금액은 7,500유로를 상한으로 하며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 연구개발을 의뢰한 중소기업이 부담

○ 또한 21세기 산업인프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인트호벤을 중심으로 디자인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

- Design Academy Eindhoven을 비롯한 대학 및 직업 교육 기관과 Philips Design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아인트호벤을 디자인의 메카로 육성

□ 한편 외국어교육 시스템도 세계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중등교육과정을 기존 '3 compulsory(영어, 독어, 불어 3개국어 필수) 시스템'에서 '1 + 1(영어 필수+선택 1)시스템'으로 변경

인도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인도의 서비스수지는 1996년 39.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 흑자로 전환되고 2006년 118.2억달러의 큰 폭 흑자를 기록

○ GDP대비 서비스수지도 1996년 -1.1%에서 2006년 +1.3%로 크게 개선

인도 서비스수지 추이

	(억달러, %)						
	1990	1995	1996(A)	2000	2005	2006(B)	(B-A)
서비스수지	-14.6	-34.9	-39.3	-25.0	78.4	118.2	157.5
	<-0.5>	<-1.0>	<-1.1>	<-0.5>	<1.0>	<1.3>	
컴퓨터및정보	41.5	204.4	269.9	228.4 ¹⁾
사업	2.5	-5.9	-7.9	-1.7	4.0	17.4	25.4
여행	11.7	15.9	19.2	7.7	14.8	15.8	-3.4
특허	-0.7	-0.9	-1.1	-2.0	-6.4	-8.4	-7.3
운수	-24.6	-38.1	-44.6	-67.3	-144.2	-175.7	-131.1
기타	-3.3	5.8	-0.9	2.3 ¹⁾
서비스수입	46.2	67.7	72.4	166.8	558.3	753.5	681.2
컴퓨터정보	47.3	220.1	291.9	244.6 ¹⁾
사업	19.7	21.2	21.4	41.5	146.3	232.0	210.6
여행	15.6	25.8	28.3	34.6	74.9	89.3	61.0
특허	0.0	0.0	0.1	0.8	1.3	1.1	1.0
운수	9.6	18.9	19.9	19.8	57.2	76.3	56.4
기타	22.9	58.5	63.0	40.1 ¹⁾
서비스지급	60.9	102.7	111.7	191.9	479.9	635.4	523.7
컴퓨터정보	5.8	15.7	22.0	16.2 ¹⁾
사업	17.1	27.1	29.4	43.2	142.3	214.5	185.2
여행	3.9	10.0	9.1	26.9	60.1	73.5	64.4
특허	0.7	0.9	1.2	2.8	7.7	9.5	8.3
운수	34.2	57.0	64.5	87.0	201.4	252.0	187.5
기타	26.1	52.7	63.9	37.7 ¹⁾

주 : 1) 2000 ~ 2006년중 증감액

2)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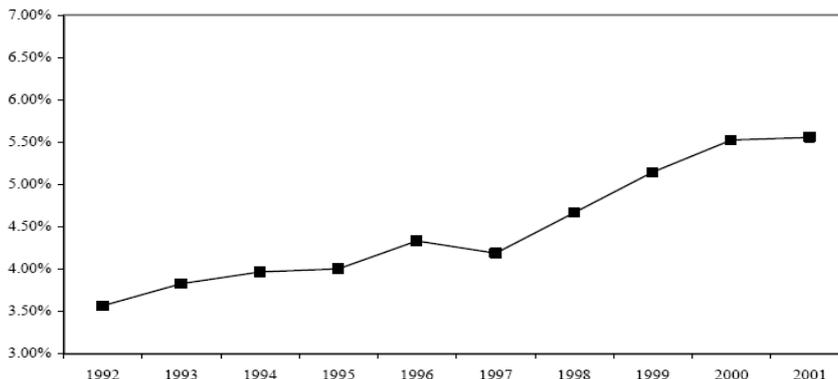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부문별로는 컴퓨터·정보서비스(2000년 +41.5억달러 → 2006년 +269.9억달러)가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한 가운데 사업서비스(1996년 -7.9억달러 → 2006년 +17.4억달러)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반면 만성적자 부문인 운수수지(1996년 -44.6억달러 → 2006년 -175.7억달러)는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컴퓨터·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도의 서비스수지가 큰 폭 흑자 전환을 이루어낸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웃소싱전략과 인도의 경제성장전략이 상호 부합한 데 주로 기인
-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비용절감 및 기업경영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생산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
 - 영국의 경우 輸入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상승

영국의 輸入서비스 중간투입 비중¹⁾



주 : 1) 에너지를 제외한 총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Amiti & Wei(2004)

- 한편 인도는 풍부한 저임금 지식노동력에 기반한 IT응용서비스(IT-enabled service)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으로 프로그래밍 등 IT산업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수혜국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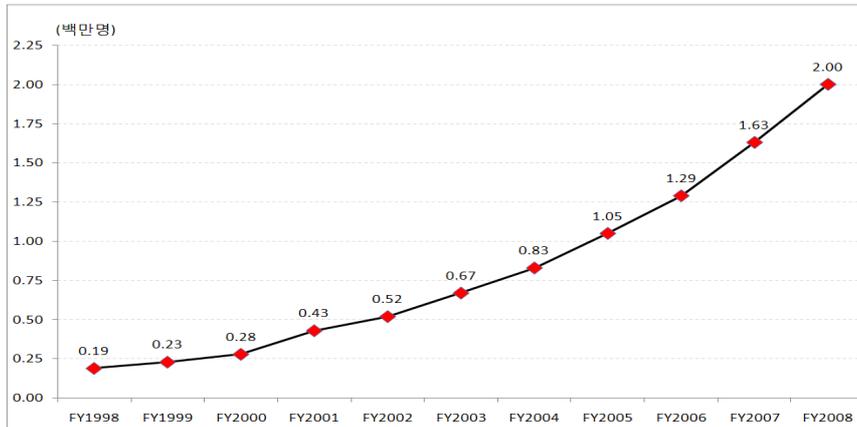
인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현황

	성장률				비중 (%)	
	2000	2002	2004	2000-04	1999	2004
서비스	7.3	8.5	13.0	9.3	36.5	42.2
농림어업	-0.3	-7.8	0.7	1.8	25.4	20.5
제조	7.7	6.8	8.1	6.4	16.2	16.3
국가주도섹터 ¹⁾	2.2	9.6	1.1	4.9	9.7	9.1
건설	6.1	7.7	12.5	8.2	6.4	7.1
부동산	2.6	2.3	2.7	2.5	5.7	4.8
합계	4.6	4.0	7.8	6.2	100.0	100.0

주 : 1) 공공서비스, 광산, 철도, 우정, 은행 등
 자료 : OECD(2007b)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콜센터 등의 서비스 아웃소싱에서 인도가 최적입지로 부상한 데에는 저임금의 영어가능 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인도의 IT산업 종사자 수¹⁾



주 : 1)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 이외에 직접고용 인원 기준
 자료 : Nasscom

- 한편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미국과의 12시간 시차에 따른 전세계 24시간 서비스 지속성 확보 등 자연문화적 조건도 인도의 서비스 아웃소싱 입지 우월성을 제고

* 인도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학부가 기술학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장 우수한 학생이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교육의 질도 높아 양질의 인재공급이 지속(인도의 대표 IT기업 위프로社의 CEO Premji와의 인터뷰, 이은구(2003))

- 인도출신 우수한 노동력의 미국기업에 대한 단기파견 등도 이들의 귀국 이후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인도의 서비스수지 개선정책은 IT서비스중심 경제성장전략 그 자체에 있으며 경제자유화와 IT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정책의 핵심요소
- 1980년대 이후 기존의 반외자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IT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을 비롯한 시장 개방 및 자유화정책을 적극 추진
 - 특히 통신, 보험, IT 등 서비스부문에서 기존의 정부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민간경쟁구도로 변화시킴으로써 동 서비스가 경제성장을 주도
- 정부의 대학설립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립대학이 늘어나고 그 결과 풍부한 숙련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

- 한편 IT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Software Technology Park
를 설립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집중
 - 광역위성통신시설, 배후전력발전, 수입관세 면제, 장비리스
금융지원, one-stop 행정서비스 등 양질의 인프라스트
럭처를 구축
 - 제조업 부문에 적용되는 엄격한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
 - 입주 5년 동안 면세 및 이후에도 일정한 조건하의 수출
에 대한 면세혜택 등 조세혜택 제공
- ⇒ 인도 IT서비스 매출의 85%가 60여개의 Software
Technology Park에서 발생하며, 인도는 미국기업이 발주
하는 오프쇼어 IT서비스시장의 84%(2005년, IDC)를 점유

인도의 주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관세 감면	-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폐지 - 일정 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자본재 수입관세 감면
세금 감면	- 소프트웨어 수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 감면 -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5년간 감가상각률을 90%까지 인정
외국인투자규제완화	-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51%까지 외국인투자 자동인가 - 외국인 투자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고 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 벤처 캐피탈 육성 및 해외자본 유치에 노력
전반적인 개혁·개방	- 전반적인 경제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
국제인증획득인센티브	- ISO9000인증 획득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특별수입라이선스 발급
법/제도 정비	- 저작권법 강화, 불법 제품 단속
소프트웨어집적단지조성	- Software Technology Park를 건설 및 정보통신인프라 제공
정보화기반 확충	- 정보통신망 확충, 정보화 저변 확대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1), 전황수(2007) 등

호 주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호주의 서비스수지는 1989년 43.2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 이후 소폭 흑자를 지속

○ GDP대비 서비스수지도 1989년 -1.4%에서 2000년대 이후 균형에 가까운 흑자로 개선

호주 서비스수지 추이

(억달러, %)

	1989(A)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B)	(B-A)
서비스수지	-43.2 <-1.4>	-35.7 <-1.1>	-9.1 <-0.2>	9.6 <0.2>	5.4 <0.1>	8.7 <0.1>	15.5 <0.2>	58.7
여행	-2.2	0.4	29.6	29.0	56.2	61.6	80.8	83.0
사업	-11.9	-13.1	-8.8	3.1	8.4	11.9	17.5	29.4
특허	-6.4	-6.6	-7.6	-7.9	-14.5	-15.7	-22.3	-15.9
운수	-16.3	-10.5	-15.5	-19.8	-45.9	-49.8	-58.7	-42.4
기타	-6.4	-5.8	-6.9	5.2	1.2	0.6	-1.9	4.5
서비스수입	88.6	102.0	164.9	198.9	310.5	330.9	404.5	315.9
여행	36.0	42.5	81.3	92.9	168.7	178.5	223.4	187.4
사업	13.8	15.3	11.0	20.1	34.5	40.1	55.4	41.7
특허	1.7	1.6	2.4	3.7	5.5	6.2	7.3	5.6
운수	30.7	34.9	47.1	43.1	61.7	63.6	72.3	41.6
기타	6.4	7.8	23.1	39.1	40.1	42.4	46.1	39.7
서비스지급	131.8	137.7	174.0	189.3	305.0	322.2	389.0	257.2
여행	38.2	42.1	51.7	63.9	112.5	116.9	142.5	104.3
사업	25.6	28.5	19.8	17.0	26.1	28.3	37.9	12.2
특허	8.1	8.3	10.0	11.6	20.0	21.9	29.6	21.5
운수	47.1	45.4	62.6	62.9	107.6	113.3	131.0	83.9
기타	12.8	13.5	30.0	33.9	38.8	41.8	48.0	35.2

주 : 1)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부문별로는 여행(1989년 -2.2억달러 → 2007년 80.8억달러) 및 사업 서비스(-11.9억달러 → 17.5억달러)가 적자 기초를 탈피하여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
 - 특히 여행수지는 1990년 흑자를 기록한 이래 흑자규모가 꾸준히 확대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1990년대 이후 호주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유학관련 여행수입 급증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에 주로 기인
 - 유학관련 여행수입 급증은 중국·인도 등 유학수요가 많은 국가들과의 지리적 접근성, 미국·영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들보다 낮은 물가 등에 주로 기인
 - 호주 대학들의 우수한 경쟁력(2007년 Time誌 선정 세계200대 대학 포함대학수 3위(12개)) 및 호주 정부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정책 등도 유학관련 수입 증대에 기여
 - 반면 일반여행관련 수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적자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적자가 계속 확대

호주 여행수지 추이

(억달러)

	1989(A)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B)	(B-A)
여행수지	-2.2	0.4	29.6	29.0	56.2	61.6	80.8	83.0
업무여행	-4.9	-5.1	-8.9	-6.1	-3.9	-2.3	-1.3	3.7
업무외여행	2.8	5.5	38.5	35.1	60.1	63.9	82.2	79.4
유학관련	4.0	4.8	13.3	20.4	65.2	72.2	95.5	91.4
<수입>	5.9	7.1	16.7	23.8	70.6	78.1	102.1	96.2
<지급>	1.8	2.3	3.5	3.4	5.4	5.9	6.6	4.8
일반여행	-1.3	0.7	25.1	14.7	-5.0	-8.3	-13.3	-12.0

자료 :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한편 호주의 여행수입 급증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주 여행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2007년 호주의 영어집중코스(ELICOS) 등록 한국인 학생수는 14,573명으로 2위(1위는 중국 25,094명)
- 2006년 한국인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건수도 28,560건으로 2위를 기록(1위는 영국 31,211건)

호주의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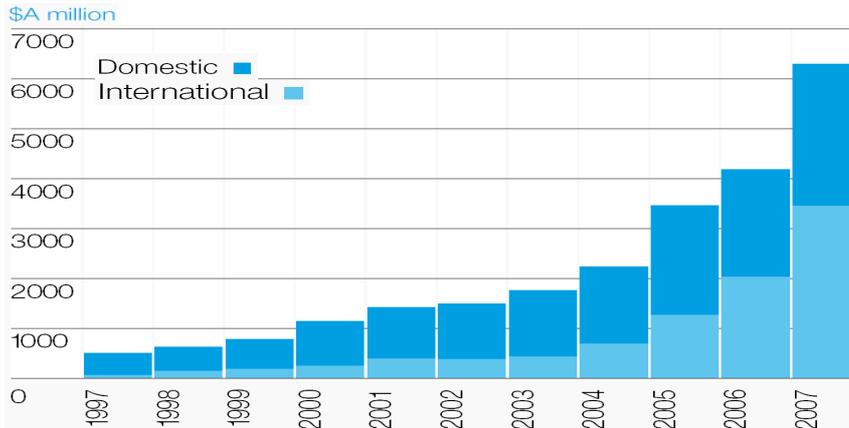
	FY2002(A)	FY2003	FY2004	FY2005	FY2006(B)	증가율(B/A)
영국	39,690 <44.7>	34,963	30,092	28,821	31,211 <23.2>	-21.4
한국	5,858 < 6.6>	9,513	17,706	24,077	28,560 <21.2>	387.5
독일	7,558 < 8.5>	9,672	10,646	12,089	15,688 <11.7>	107.6
아일랜드	11,128 <12.5>	12,231	12,585	12,554	13,518 <10.0>	21.5
일본	9,711 <10.9>	9,915	9,975	9,415	11,707 < 8.7>	20.6
프랑스	.. < .. >	1,601	4,550	6,125	8,210 < 6.1>	412.8 ¹⁾
캐나다	6,230 < 7.0>	6,509	6,656	6,828	7,078 < 5.3>	13.6
기타	8,583 < 9.7>	9,355	12,158	14,026	18,640 <19.9>	117.2
Total	88,758 <100.0>	93,759	104,368	113,935	134,612 <100.0>	

주 : 1) FY2003~FY2006년중 2) < >안은 국가별 비중
 자료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ustralian Government

□ 또한 호주의 최대 투자은행인 맥쿼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따른 금융서비스수지 및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수지의 개선도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 지난해 맥쿼리가 인수·합병 관련 자문,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해외자산 운용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전체 영업수입(75.7억호주달러)의 57%(42.9억호주달러)에 달함

맥쿼리의 국내외 영업수입 추이



자료 : Macquarie Group, Annual Review 2007

- 호주 건축서비스 부문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 및 신흥시장국의 건설경기 호조 및 FTA 등에 따른 시장 확대에 힘입어 건축 등의 사업서비스 수입도 크게 증가
- 호주는 EDAW Gillespies, HOK Sport Venue Event, PTW, Group GSA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의 부문에서 강점을 보유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호주의 서비스수지 개선정책은 해외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에 집중
- 호주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외국학생들의 유학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03년 「국제교육정책」을 발표

- 호주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① 유학자원의 다변화, ② 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 ③ 비자제도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전개

호주의 유학생 유치정책 방향

기본방향	주요 내용
유학자원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출신국가의 다양화 · 유학생 전공분야의 다양화 · 유학생 분포 교육과정의 다양화 · 교육의 전달방법 다양화(e-learning 등) · AEC(Australian Education Centre), AEI(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IDP Education 등을 통한 유학 홍보 및 상담
유학생 교육의 질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유학생수가 늘어나더라도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 · AUQA(Australian Universities Quality Agency)를 통한 교육과정 감독 · ESOS(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를 통한 외국인 학생 권익 보장, 교육기관 등록 및 감독 · PRISM(The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유학생 등록상태 관리 등
투명하고 유연한 비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신흥시장으로 부각되는 국가에 대해 별도의 비자발급 규정을 적용 ·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마다 새로운 비자클래스를 제공 · 호주 대학/대학원과 협력체제를 구축, 호주 유학 졸업생의 고용 장려

자료 : 박응수 外(2004)

⇒ 이에 따라 호주에 있어서 유학산업은 2007년중 102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석탄(174억달러) 및 철광석(134억달러) 다음가는 제3위의 수출산업으로 부상

- 서비스 부문 내에서는 2007년중 처음으로 관광산업(99억달러, 개인여행 기준)을 능가

뉴질랜드

(서비스수지 개선 현황)

- 뉴질랜드의 서비스수지는 1992년 9.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이후 소폭 흑자로 전환
 - GDP대비 서비스수지도 1992년 2.4%로 경제규모대비 적자가 컸으나 최근에는 균형에 가까운 흑자를 시현
 - 부문별로는 여행서비스의 수입 증대가 전체 서비스수지 개선을 주도

뉴질랜드 서비스수지 추이

(억달러, %)

	1990	1992(A)	1995	2000	2005	2006	2007(B)	(B-A)
서비스수지	-8.3 <-1.9>	-9.4 <-2.4>	-1.8 <-0.3>	-0.8 <-0.2>	3.7 <0.3>	3.1 <0.3>	2.3 <0.2>	11.7
여행	0.7	1.2	10.6	8.2	25.1	22.5	23.4	22.2
사업	-5.5	-7.3	-4.5	-4.1	-3.4	-4.1	-7.3	0.1
특허	-1.9	-2.6	-4.6	-3.6	-4.2	-2.3 ¹⁾
운수	-2.7	-1.8	-3.6	-2.1	-11.5	-9.3	-9.6	-7.8
기타	-2.5	-0.2	-1.9	-2.4	-0.1	2.4 ¹⁾
서비스수입	24.9	26.3	44.8	44.1	85.9	81.0	92.9	66.5
여행	10.3	11.0	23.2	22.7	51.6	47.8	54.1	43.1
사업	3.4	4.0	5.0	3.6	7.9	8.2	6.3	2.3
특허	0.1	0.5	0.9	1.2	1.4	1.3 ¹⁾
운수	10.5	11.1	15.3	12.2	16.4	16.7	19.9	8.8
기타	1.3	5.1	9.1	7.1	11.3	10.0 ¹⁾
서비스지급	33.2	35.8	46.6	44.9	82.2	78.0	90.6	54.8
여행	9.6	9.7	12.6	14.5	26.6	25.3	30.7	20.9
사업	8.9	11.3	9.5	7.7	11.3	12.3	13.5	2.2
특허	2.0	3.1	5.5	4.9	5.6	3.6 ¹⁾
운수	13.2	12.9	18.8	14.3	27.9	25.9	29.5	16.6
기타	3.8	5.3	11.0	9.5	11.3	7.6 ¹⁾

주 : 1) 1995~2007년중 증감액

2) < >안은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서비스수지 개선 요인)

- 뉴질랜드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흥행 성공 등에 따른 여행서비스 수입 증대에 주로 기인
- 뉴질랜드의 여행수입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18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반지의 제왕>이 개봉된 2002년 이후 연평균 46억달러로 2.5배 이상 증가

뉴질랜드 여행서비스 추이

	(억달러)								
	1990	1995	2000	2002	2004	2006	2007	1990 ~ 2001 ¹⁾	2002년 이후 ¹⁾
여행수지	0.7	10.6	8.2	17.7	28.1	22.5	23.4	5.9	23.7
<수입>	10.3	23.2	22.7	31.6	50.3	47.8	54.1	18.2	46.2
<지급>	9.6	12.6	14.5	13.9	22.2	25.3	30.7	12.3	22.5

주 : 1) 기간중 연평균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서비스수지 개선 정책)

- 뉴질랜드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뉴질랜드 정부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시행한 영화산업 진흥정책의 결과
- 1999년 집권한 Helen E. Clark 총리는 창작산업(Creative Industry)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반지의 제왕> 홍보비로 19백만달러의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
 - Film New Zealand*를 설립하여 해외 영화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Screen Council** · Film Commission***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

* 뉴질랜드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해외 촬영팀에 촬영장소 물색, 촬영설비 대여, 스태프 알선, 촬영 허가, 비자·교통·숙박 문제 해결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투자기관

** 뉴질랜드 영화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

***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 이후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대규모예산 영화제작 지원안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Scheme)*'을 마련하는 등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영화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의 70% 이상을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금액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면 뉴질랜드 내 소비액의 12.5%를 지원해주는 방안

○ 이와 함께 뉴질랜드에서는 영화의 성공을 여행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

- <반지의 제왕> 흥행 성공 이후 국적 항공기 기체(機體)에 영화캐릭터 삽입, 공항 입국장 영화홍보판 설치 등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바탕으로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 이후에도 <킹콩>, <나니아연대기> 등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촬영되는 세계 영화촬영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영화의 흥행을 통한 자국 이미지 제고로 여행산업도 동반 성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향유

3. 종합 평가

- 주요국의 서비스수지 개선은 서비스수지 개선 자체를 목표로 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주로 기업들의 FD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화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 일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는 국내 첨단기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R&D 및 특허 등의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면서 관련서비스 수입이 증가
 - 한편 인도와 아일랜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기업 유치 및 아웃소싱 공급으로 서비스 수입이 증가
 - 호주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영어교육 수요가 증대되면서 영미문화권 영어사용국가라는 이점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확대 전략으로 서비스수지가 개선
 - 한편 뉴질랜드는 영화산업 진흥정책을 통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한 대표적인 정책성공 사례

주요국별 서비스수지 개선요인

국가	개선폭 ¹⁾	최대 개선 요인	정책 효과 ²⁾
일본	0.8%p(11년)	경기 침체 완화약해 해외직접투자 증가	일부 직접(Visit Japan 캠페인)
독일	1.3%p(8년)	해외직접투자 증가	간접(경쟁활성화)
스웨덴	4.2%p(8년)	해외직접투자 증가	간접(산업클러스터 육성)
네덜란드	0.9%p(6년)	해외직접투자 증가	간접(규제개혁)
아일랜드	8.4%p(5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간접(낮은 세율로 FDI 유치)
인도	2.4%p(10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간접(IT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호주	1.6%p(18년)	외국의 영어교육수요 증가	직접(유학생 유치확대 정책)
뉴질랜드	2.5%p(15년)	영화산업 진흥정책의 성과	직접(영화산업 진흥정책)

주 : 1) GDP대비 서비스수지 비율 기준, ()안은 서비스수지가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시점부터 최근(2006~7년)까지의 기간
 2) 서비스수지 개선을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간접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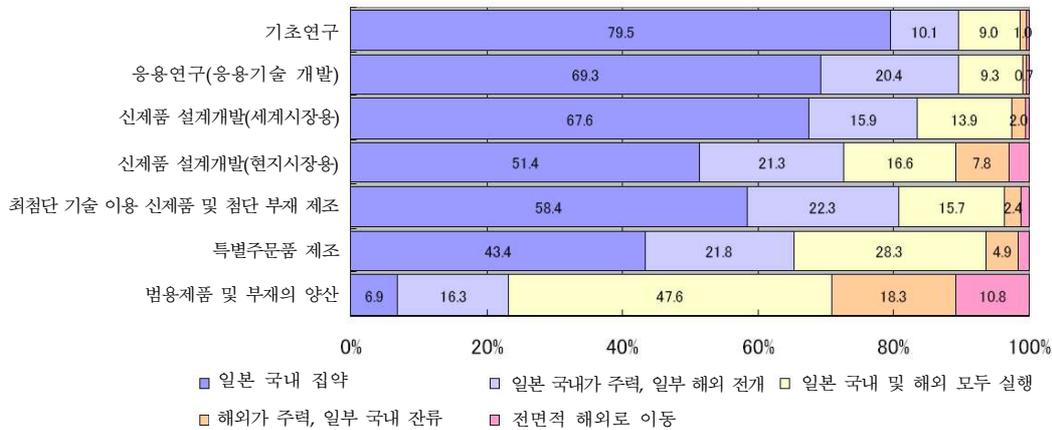
□ 특히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핵심원천기술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서비스수지 개선을 초래한 것이 주요 특징

○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자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회사에 대해 R&D 및 기술특허 등 각종 서비스를 활발하게 공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입이 꾸준히 증가*

* 68쪽. <참고 4> '해외직접투자 및 서비스수지 관계의 국제비교' 참조

- 해외직접투자가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제조업 부문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핵심경쟁력 확보 및 기업내 국제서비스거래의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시사
- 일본은 국내에서 기초·응용연구를 통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단순제조기능을 해외에 배치함으로써 해외 생산기지에 고도기술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가 정착

일본 제조업의 국내외 기능분업 방향¹⁾



주 : 1) 일본 경제산업성의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대상 조사결과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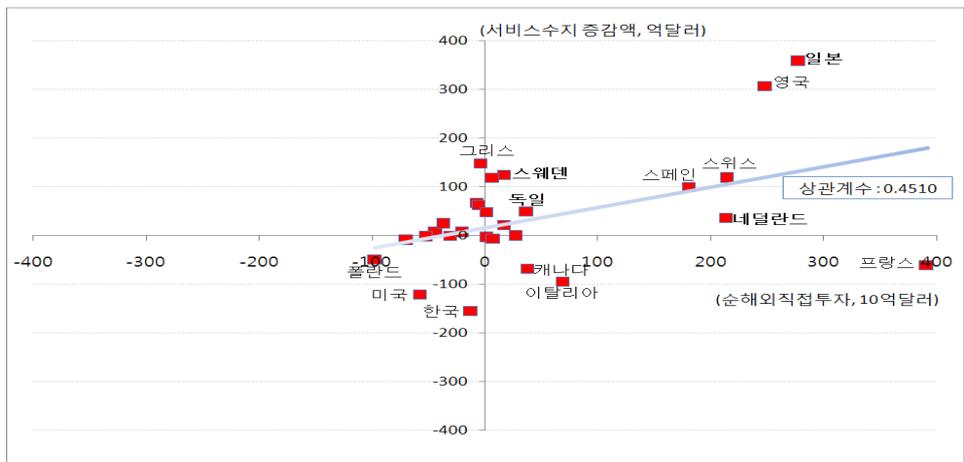
<참고 4> 해외직접투자 및 서비스수지 관계의 국제 비교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및 서비스수지의 증감을 살펴본 결과 순해외직접투자*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대체로 서비스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상관계수 : 0.45)

*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차감한 금액

- 1997년 당시 서비스수지 적자 국가였던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함께 서비스수지가 개선
 - 자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R&D 및 특허 등의 서비스 제공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예외적으로 많은 관광수입으로 인해 대표적인 서비스수지 흑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함께 서비스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해외직접투자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많았던 미국, 한국, 폴란드는 서비스수지가 악화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요인보다는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에 따른 사업서비스 등의 해외소비 증가에 주로 기인

순해외직접투자 및 서비스수지 증감
(1997~2006년중)



자료 : OECD,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 이들 나라들은 모두 과거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보일 당시 또는 현재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음
- 개방경제 하에서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룬 주요국들은 서비스수지 적자를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전략의 포지셔닝에 따른 결과일 뿐 치유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
 - 독일의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는 제조업 비교우위에 따른 상대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보며 제조업 부문에 내포된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서비스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파악
 - ECB 가맹국들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외수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도외시하는 요인 중 하나
- 특히 여행수지 적자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소득 증가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여행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여행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내국인의 해외출국을 장려하는 Visit World Campaign도 병행 실시
 -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경우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도 정책적 관심이 약한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상당 부분 기여
 - 네덜란드는 규제완화 및 R&D 지원 등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 아일랜드 및 인도는 FDI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고급 인적자본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입 증대의 기반을 확충
 - 스웨덴은 오랜 기간에 걸쳐 Kista Science City와 같은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이노베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권 축적의 기반을 조성
- 대체로 자국이 처한 여건 및 대외환경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절히 추진한 것이 경제정책의 성공을 통한 간접적인 서비스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
 - 아일랜드, 인도, 호주, 네덜란드 등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 경제활성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을 모두 달성

	대외환경 변화	자국의 여건	대응정책조치	결과
아일랜드 인도	글로벌아웃소싱 증가	영어 사용 고급 노동력 풍부	세제/보조금 혜택 FDI 적극 유치	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호주	외국의 영어 교육수요증가	영어 사용 영미대비 낮은물가	유학생 유치 확대	
네덜란드	EU통합	자원 부족/고임금 소규모개방경제	정부규제 완화 Innovation 지원	

V. 정책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과 연계된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해 왔으나 서비스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지속
 -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진단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을 수립, 시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서비스수지 적자가 GDP의 2% 내외에 이르는 등 정책의 시차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도 일부 기인하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이면현상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데 주로 기인
 - 정부는 최근 8년간 관광수지 개선대책을 비롯하여 총 40여회에 걸쳐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수지 관련 대책을 발표*
 - * 82쪽. <붙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2001년~2008년)' 참조
 -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 커다란 효과가 없었음
 -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경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데 기인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국가에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심각한 경제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을 다소 자제할 필요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이 비단 서비스수지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고용·성장과도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세계 11위 무역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큰 틀에서 세계경제를 조망하고 우리 경제의 위치를 자리매김 할 필요

-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의 기술고도화를 전제로 한 기업 글로벌화의 진전은 자연스럽게 서비스수지의 개선을 초래

⇒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의 기존정책들 가운데 효과적인 정책들을 선별하여 계속 충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필요

① 기술력 제고

□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서비스수지 적자는 각국의 경제구조 문제에 달려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접근이 바람직

○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한 가운데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연결된다는 근본인식에서 출발

-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반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핵심원천기술의 부재를 반영

* 영국, 미국# 또한 과거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누리다가 핵심역량 (경영기획 및 R&D 등의 서비스 부문)만을 국내에 남기고 다른 기능을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과정을 통해 서비스 강대국으로 변모

미국의 경우 IBM을 비롯한 제조업체 근로자의 90%가 생산이 아닌 재무, 마케팅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Harry and Schroeder, 2000)

-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여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자회사에 제공할 만한 R&D 및 특허 등 고도기술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75쪽. <참고 5>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현황과 문제점' 참조

-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가 최우선과제

□ 무엇보다 과학기술 부문 인재 육성, 기업들의 R&D 역량 강화, 기존 1·2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기술재교육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인적자본 투자 확대가 가장 시급

-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전액면제, 과학기술 각 분야에 정부주도 연구기관의 대폭 확충을 통한 사회진출 기반 마련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특단의 파격적 조치가 필요

<참고 5>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율은 3.28%로 주요 글로벌 기업 평균(3.43%)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나 큰 차이는 아님

○ 미국(4.52%), 일본(3.64%), 독일(3.43%)보다는 낮지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프랑스(2.46%), 영국(1.91%)보다는 높은 수준

글로벌 기업들¹⁾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국제 비교

							(%)
스위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전체
6.32	4.52	3.64	3.43	3.28	2.46	1.91	3.43

주 : 1) 2006년 기준 세계 R&D 투자 상위 1,338개 기업 기준. 한국은 22개 기업이 포함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달리 해외자회사에 대해 제공할 기술이 부족한 것은 주로 1~2년내 활용가능한 개발연구에만 연구역량이 집중되고 기초연구가 부족하기 때문

○ 고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6%에 불과하고 소재·설계관련 기술은 여전히 취약한 기술부문으로 남아있는 상황

- 연구개발의 80%가 단기 수익에 연결될 수 있는 개발기술에 집중되어 핵심원천기술의 연구여력이 미약

- 이에 따라 특허권등사용료의 원천이 되는 소재·설계관련 기술은 여전히 취약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격 및 취약점 조사결과

		(%)	
부문별 연구개발 비중		세계최고수준대비 취약부문 비중	
개발연구	80.1	소재관련 기술	33.2
응용연구	13.9	제품설계 기술	27.3
기초연구	6.0	부품관련 기술	12.7
		조립가공 기술	7.6
		기타	19.2

자료 : 산업연구원(2007)

□ 그 결과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IT산업에서조차 주요부문의 세계최고대비 기술연구개발 수준은 68% 정도에 불과

○ 연구, 기술개발, 산업기술력 3가지 분야 중에서 기초가 되는 연구수준이 특히 취약

한·미·일 전자정보통신산업 주요부문별 기술연구개발수준¹⁾ 비교

산업부문	기술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일렉트로닉스	VLSI 시스템 아키텍처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집적회로(디지털)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집적회로(고주파·아날로그)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집적회로(메모리)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집적회로(인테그레이션)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센서 기술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포토닉스 (광산업)	광통신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컴퓨팅	기초 이론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기반 소프트웨어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툴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환경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네트워크 응용(서비스 기술)	연구수준	◎	○	△	
	기술개발수준	◎	○	△	
	산업기술력	◎	○	○	
전자정보통신 주요부문의 기술연구개발수준지수(미국=100) ²⁾			100.0	83.4	68.3

주 : 1) ◎: 매우앞선(非常に進んでいる), ○: 앞선(進んでいる), △: 늦은(遅れている), ×: 매우늦은(非常に遅れている)

2) ◎, ○, △, ×을 각각 4, 3, 2, 1점의 척도로 점수화하여 합산한 다음 미국(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 日本 科学技術振興機構 研究開発戦略センター(2008)

- 기업 차원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및 중소기업들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가 시행하고 있는 'Innovation Voucher'의 도입을 적극 검토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R&D 지원을 위해 더욱 관대한 조세 감면제로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OECD, 2007c)

- 아일랜드의 사례와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전통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부주도의 기술재교육도 저소득층 소득 향상 및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과제
- ICT,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지속적인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② 규제완화

- 네덜란드에서처럼 규제완화 및 기업들의 경영관리비용부담 축소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
 - 범정부 규제현황DB를 구축하고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에 따른 행정부담규모는 25.4조원 (GDP의 3%) 수준인 것으로 추정(2008.4월, 국무조정실 경제규제관리관, 규제연구회 발표자료)
 - 한편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ACTAL/IPAL과 같은 독립적인 규제감독기구의 정부부처에 대한 권한(예산, 조직 등) 강화를 통해 규제완화의 구심점을 확립

- 심사·자문을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이외에도 예산·조직 등의 측면에서 정부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심적인 집행조직이 필요*

* 현재 규제개혁 집행기구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실이 있으나 정부 예산·조직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한은 없음

③ 국내교육시스템의 만족도 및 기대수익 제고

- 국내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과 높은 민간교육비 부담이 해외 유학·연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교육부문의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
 - 교육만족도의 획기적 제고와 공교육의 공적부담률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정책목표로 혁신을 추진
 - 학생주도 선택형 수업,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교육체제 확립 등 사회적 공감대를 갖는 개혁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실행
 - 공교육에 대한 공적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
 - 초·중·고교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학급당 및 교사당 학생수의 선진국 수준 감축, 초·중등교육의 지나친 경쟁 지양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조기유학 수요를 억제
 - 대학원중심대학의 육성 및 대학부문의 경쟁활성화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확대

- 이 밖에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인재등용에 있어서 국내학위 취득자와 해외학위 취득자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인재의 과도한 해외편향을 억제
- 국내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재의 육성 및 발굴이 주요 선결과제
- 일본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 미국 명문대 등 해외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선호현상이 존재했으나 1990년대의 혹독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면서 사회가 변화
 - 과거 학력·학위 등 타이틀을 중시하던 풍조에서 실력을 최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한 것이 일본의 유학·연수수지 개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

④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영어 숙련도 제고

- 아일랜드, 인도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필수로 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FDI 유치 및 대외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영어 숙련도 제고가 필수적
- 아일랜드와 인도가 ICT 및 금융서비스 등에서 FDI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어 사용의 이점이 매우 크게 작용
- 장기적으로는 정부 국책사업으로 문자 및 음성인식 영어번역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

- 번역기술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많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
 - 이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자동번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책과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 * 특히 미국은 국방첨단기술연구소(DARPA) 주도로 중국의 부상 및 이라크 전쟁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중국어 및 아랍어를 영어로 변환하는 자동통역 연구를 대규모로 지원. 아랍어의 경우 현재 약 80%의 정확도로 의료정보를 영어로 자동통역 가능한 수준(김운 외, 2008)
 - 한편 세계번역시장 규모는 향후 2012년까지 연평균 1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Common Sense Advisory, 2008)

⑤ 기타 단기대책

- 상품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가 위협받는 점을 감안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기대책들도 강구해 볼 필요
 - 한류(韓流)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여 한류가 실질적인 서비스수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본에서의 한류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
 - * 일본 현지에서는 각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꾸준히 수입·방영하고 있으며 편당 수입가격도 서구 드라마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전언

- 일본내 한류의 주 고객인 중년여성들의 문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등과 달리 문화적 집착 또는 인기도가 쉽게 식지 않아 한류는 충분히 지속성 있는 현상으로 분석
- 다만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뚜렷한 상품 및 이벤트가 없어 아직 상품화·사업화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미흡한 점
- 한·중·일 합작 관광패키지 상품 구성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
- 한·중·일의 관광상품을 테마별로 조합하여 패키지를 구성하고 서구 선진국 및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

<붙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2001년~2008년)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2001. 2. 6.	서비스 산업의 국가표준 제정 추진	산업자원부
2001. 3. 6.	서비스품질 인증제도 시행	산업자원부
2001. 4.25.	지식기반교육정보망(KEDUNET) 구축	산업자원부
2001. 5.11.	문화관광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포 및 시행	문화관광부
2001. 7.13.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수립계획	재정경제부 등
2001. 9. 5.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비즈니스 서비스 및 서비스 수출 대책을 중심으로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 - 무역의 범위에 서비스를 포함, 서비스 수출지원센터 설치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을 도모하는 통합 산업정책으로 전환 - 지식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인을 찾음 	산업자원부
2001. 9.27.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추진 (경제장관담담회 개최 결과)	산업자원부
2001. 9.27.	서비스 컨퍼런스 2001(비전 2001 프로젝트 토론회) 개최	산업자원부
2001.10.19.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지원 특별펀드 1조원 조성 - 기은, 신보-기보 공동운영, 우대금리, 특례보증 적용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2001.11. 3.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산업자원부
2001.12. 6.	SI산업 활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지원 강화 - 정부 SI조달체제의 개선 -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 SI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2001.12.17.	서비스산업 주간(Service Industries Week) 선포	산업자원부
2001.12.22.	「WTO 서비스협상 및 서비스산업의 대응」 컨퍼런스 개최	산업자원부
2001.12.27.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관광숙박단지 조성 -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관광사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조건 개선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관광사업 범위확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2001.12.27.	문화산업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애니메이션 TV편성 제도개선 - 대기업 출자총액/지분총액 제한 완화 - 외주제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버추얼광고 허용으로 스포츠 중계 활성화 도모 - 문화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 문화산업분야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2002. 1. 5.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인프라 개선 방향 - 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및 서비스수지 항목 세분화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확대 개편 - 적시성 있는 월·연간 서비스산업 동향자료의 확충	산업자원부
2002. 3.16.	지식서비스수출 활성화 본격 추진	산업자원부
2002. 6.19.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비전 및 정책방향 수립 - 공공부문의 관행 및 제도개선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수요 창출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시장친화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협업적 기업문화 조성	산업자원부
2002. 8. 6.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 서비스분야 전공학과 확충 - 서비스분야 R&D 지원확대 -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 서비스부문 민간자격 공인확대 및 자격제도 개선 -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서비스 전문대학원 설립 등)	산업자원부
2002. 8.22.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전략회의 개최	산업자원부
2002. 8.23.	중장기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 서비스를 무역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수출실적을 인정 - 서비스수지 통계 세분화를 통해 서비스수출 동향분석방안을 마련 - 지식서비스 수출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해외마케팅을 강화 - 유망 지식서비스수출 업체 지정제도를 도입	산업자원부
2002.11.26.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장관간담회) -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산자부) - 산재보험 합리화 방안(노동부) - 직업훈련 효율화 방안(노동부) - 종자·중요산업 육성 방안(농림부)	재정경제부
2002.12.13.	제2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장관간담회) - 환경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환경부)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해수부) - SI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정통부)	재정경제부
2003. 3.27.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컨설팅, 회계 등 지식서비스 수출 지원 · · · 본격적인 서비스 수출시대 열린다 -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유망한 지식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 - IT, BT, NT 등 첨단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검사권 부여 -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자에게 외화획득 이행의무 부과 등	산업자원부
2003. 5.29.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세미나 개최	산업자원부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2003.12. 2.	관광수지 개선대책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광호텔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 관광호텔 등에 외국인력 고용 허용 · 관광단지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문제 · 골프 등 레저-스포츠산업 규제합리화 · 골프장 지방세-특소세 인하 문제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효율화 - 대상 지역별로 특화된 해외관광객 유치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 코리아센터 설립 사업 - 국제적인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국제자유도시, 인천 경제자유구역 관광개발 · 대규모 관광단지에 외자유치 활성화 · 숙박-문화-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 · 해외 골프관광의 국내 전환을 위한 골프장 확충 - 국내 관광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 · 비즈니스호텔, 관광펜션 등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관광상품 발굴 - 국내 국민 관광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나라 알기' 운동 전개 ·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2004. 1.28.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지식정보화 추진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정보의 DB화 - 비즈니스서비스 수요-공급기업간 정보전달채널(네트워크)를 구축 	
2004. 3.19.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논의	경제장관컨설팅회
2004. 4.22.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방안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업 및 광고업을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 물류업/경영상담업/전문디자인업 등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 -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 인문계/사회과학분야 대학 훈련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04. 6. 2.	문화콘텐츠 수출정보시스템(CES) 구축	문화관광부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2004. 6.16.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 ~ 2008년)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활관광 환경 조성 · 국민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 인프라 조성 · 국민관광 수요확대에 적극 대응한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의 특화 관광개발 및 지역간 연계개발 추진 · 관광개발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 내실있는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 관광산업 투자유치 촉진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관광한국 이미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 관광기반시설의 양적 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 한국 브랜드 상품 및 전략시장별 관광상품 개발 · 관광편의성 개선을 위한 출입국 절차 및 국제관광교통체계 개선 · 동북아 및 남북 관광교류/협력 강화 	
2004. 6.23.	문화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모델 개발	문화관광부
2004. 6.25.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산업자원부
2004. 7.21.	산자부 장관, 서비스업계와 수출증대대책 협의	산업자원부
2004. 9.18.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 확정(경제장관간담회)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역량 강화 및 대형화 유도 - 수요창출 기반조성 -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제 강화 	
2004. 9.24.	스포츠서비스업 활성화 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문화관광부
2005. 1.28.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지원시책 대폭 확대	산업자원부
2005. 3. 8.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경쟁제한적인 규제 지속적 발굴, 개선 -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수립 	
2005. 6.22.	지식서비스 포럼 개최	산업자원부·국회
2005. 9.27.	관광수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관광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문화관광부
2005.10.25.	제1회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 개최 및 정부포상	산업자원부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2005.11.25.	서비스수출 확대 방안 수립(경제정책조정회의) -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서비스수출 지원 사업 강화 - 주요 분야별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	산업자원부
2005.12.13.	제3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개최 ¹⁾ -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교육부) - 보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여성부)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복지부)	재정경제부
2006. 3.24.	2006년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의료·교육서비스 발전 도모 - 문화 및 관광·레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생계형서비스의 구조개선 및 자생력 강화 - 서비스시장 개방과 연계한 정책 추진 -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인프라 확충	재정경제부
2006. 4.28.	서비스 표준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한·불 서비스 세미나 개최)	산업자원부
2006. 7.11.	서비스산업 정책자료집 발간 - 『Beyond Manufacturing... 우리 경제의 미래 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	재정경제부
2006. 9.20.	문화관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2007년도에 총 6,467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계획 ·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직종 발굴 및 서비스 영역의 전문화 · 향유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 ·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	문화관광부
2006.12.14.	제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경제정책조정회의) -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 ·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부담금·제도 등 차별 해소 · 불필요한 규제개선 · 서비스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도개선 · 서비스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 · 국책금융기관의 서비스산업 용자와 보증지원 확대 ·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 유도 ·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효율화 -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발굴 -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재정경제부 등 정부 21개 부처
2007. 3.14.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 세미나 개최	재정경제부

주 : 1) 제2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2006. 8. 2.) 결과는 별도 발표되지 않았음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2007. 4. 2.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크루즈선 기항 여건 및 수용태세 개선 해외 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한 크루즈 기항 확대 크루즈 관광협의 및 정보교류 활성화 국내 크루즈선사 육성 기반조성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2007. 4.1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위해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방안 추진 - 국내에 적합한 최초의 한국형 관광호텔 브랜드(BENIKEA) 개발 - 체인화를 통한 국내 관광호텔(1~3급)의 활성화	문화관광부
2007. 7.30.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경제정책조정회의) -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 경작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 • 요트/크루즈 등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제고 • 표준제정 등 제도정비 • IT 인프라확충 •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 R&D 투자 확대 •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추진	재정경제부 등 정부 17개 부처
2007.11.22.	관광산업진흥 대토론회 개최	문화관광부
2007.12.10.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경제정책조정회의) - 문화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 창작 R&D 활동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 • 문화클러스터 육성, M&A활성화 등 문화콘텐츠 기업 성장 생태환경 조성 •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 • 국내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 인프라 확충 및 공연예술시장 저변 확대 -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 IPTV 서비스 관련법 등 법·제도 정비 및 R&D 지원 강화 •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시장 진출지원 해외기업 제휴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 관광 등 기타분야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애로해소 • 수요가 높은 콘도를 자연공원내 제한적으로 허용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을 확충	재정경제부 등 정부 17개 부처
2008. 3.28.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 관광개발 관련 각종 규제 개선 - 외래관광객 등 소비자 서비스 개선 -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국내 유치	문화체육관광부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2008. 4.25.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I 발표(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	기획재정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부문 : 관광 수요자 관점에서 여행의 전과정을 세밀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간이 주도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수준높은 국내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세스를 개선 · 환경 문화 전통과 연계하여 우리만의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 적극 추진 · 해외골프 수요를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 ·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을 적극 추진 - 의료 부문 :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와 우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환자 대상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해외환자 및 동반가족 비자제도 개선 ·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제공 · 국내 의료기관 규제 완화(의료법 전면개정안 조속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사업범위 확대 - 유학연수 부문 :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철폐·과실송금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 국내 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외국거주 5년→3년) · 원어민 보조교사(자격요건 완화) 확충, 영어전용교사제(TEE) 도입 · 제주영어교육도시 차질없이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 부문 : 국내외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던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 확대 ·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쿠폰제 경영컨설팅 확대 등 아웃소싱 활성화 여건 조성 ·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를 적용 	정부 17개 부처
2008. 6. 4.	서비스산업에도 KS 인증 실시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센터에 대해 KS인증제를 실시 	
2008. 7.15.	새로운 지식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서비스혁신 모델 개발 지원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서비스혁신 분야 발굴·조사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서비스혁신 모델 및 프로세스 개발 - 서비스혁신 모델 시범 적용 및 확산 - 지식정보 교류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08. 7.22.	웹기반 SW서비스²⁾ 보급·확산 추진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운송정보 관리 서비스(e-Logistics) - 지식공유·관리 서비스(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선박용품 공급관리 서비스(Supply Chain Management) - 영상회의 및 공동저작 서비스(e-Conferencing) 	
주 : 2) SW를 자체 구축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SW를 사용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SW서비스		

<참고자료>

- 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 각 연도.
-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
- 권병욱·권동극(2006), 일본의 관광정책과 지역활성화 - 나가하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1권 제2호, 대한관광경영학회.
- 김만홍 외(2003),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당대.
- 김운 외(2008), 자동번역 기술 동향 및 응용 사례,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3권 제 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김주훈·차문중(2007),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KDI.
- 김진탁(1999), 일본의 국제관광정책 변화 추이에 관한 고찰, 『관광연구』 제13집, 대한관광경영학회.
- 김향자 외(2006), 한반도의 미래와 관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2008a), 국내 수출주력제품의 해외의존도와 시사점.
- (2008b), 새정부 출범과 관광선진화 5대 과제.
- 박상철(2006),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전략,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 발표자료집, 국토연구원.
- 박응수 외(2004), 전문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변종립(2006), 소재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부품소재』 2006 겨울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연구원(2007), 2007년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수준 및 개발 동향.
- 산업자원부·전자부품연구원(2008), 2007년 국산화실태 기술경쟁력 분석.
- 손순중(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 교육관련 '탈'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제 15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은구(2003), IT혁명과 인도의 새로운 탄생, 세창미디어.
- 日本 經濟産業省·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2008), 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振興施策.
- 日本 科学技術振興機構 研究開発戦略センター(2008), 電子情報通信分野 科学技術・研究開発の国際比較 2008年版.
- 日本銀行, 国際収支(速報) 動向, 각 연도.
- 전황수(2007),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2권 제3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최봉현 외(2007),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산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 2007년 EU 산업R&D투자 Scoreboard 분석, KISTEP 통계 브리프 2008-11.
-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각 연도.
-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각 연도.
- (2007), 한국과 일본의 외래관광객 격차 원인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2005), 생산성 국제비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1), 경쟁국의 정책/제도(인도, 이스라엘).
- 한국은행(1996), 국제수지 매뉴얼.
- ABS(Australia),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각 호.
- Amiti, Mary and Wei, Shang-Jin(2004), Fear of Service Outsourcing: Is It Justified?, IMF Working Paper, IMF.
- Berkel, Barbara(2006), European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German Cross Border Portfolio Flows, the 33rd Annual Meeting of the European Finance Association 2006, University of Zurich - Swiss Banking Institute.
- BIS(2007),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2007.
- Central Bank and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f Ireland, Quarterly Bulletin, 각 호.
- Common Sense Advisory(2008), Ranking of Top 25 Translation Companies.

Cornet, Maarten et al.(2006), Do Innovation Vouchers Help SMEs to Cross the Bridge Towards Science?, CPB Discussion Paper No.58,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roy, Glen(2004), The Lord of Rings, New Zealand, Tourism: Image Building with Film, Department of Management Working Paper no.10, Monash University.

CSO(Ireland), Service Exports and Imports, 각 연도.

Deloitte(2005), Global Financial Services Offshoring.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각 호.

DNB(Netherlands), Quarterly Bulletin, 각 호.

ECB(2007), European Union Balance of Payments/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Statistical Methods.

Ehmer, Philipp(2008), Germany the Service Society - but don't forget the industrial sector, Deutsche Bank Research.

Eisner, Natalie(2007), Latin America IT Dynamics & Global Sourcing: Market Conditions and Future Opportunities, CORFO/Invest Chile Program Seminar, IDC Latin America.

Helmerich, Alfred et al.(2005), Study of Worldwide Trends and R&D Programmes in Embedded Systems Introduction, F.A.S.T.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Germany), Annual Economic Report, 각 연도.

Forfas,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Report, 각 연도.

Forfas(2007a), Future Requirement for High-Level ICT Skills in the ICT Sector.

Forfas(2007b), Future Skills and Research Need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Industry.

Global Economics Company(2008), SMEs in the Global Economy.

Harry, Mikel and Schroeder, Richard(2000), Six Sigma, Doubleday Business.

IBFD(2005),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C 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IKED(2007), Competence Development for Growth,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Knowledge Economy and Enterprise Development.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각 연도.

——,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Yearbook, 각 연도.

JBIC(2007), Survey Report on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by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2007), The Education System in the Netherlands 2007.

Ministry of Finance(2007), Taxation in the Netherlands 2007.

Nasscom, Annual Report, 각 연도.

Nasscom · Deloitte(2008), Indian IT/ITES Industry: Impacting Economy and Society 2007-08.

OECD(2004), OECD Economic Surveys Euro Area.

——(2007a), Education at a Glance 2007.

——(2007b), OECD Economic Surveys India.

——(2007c),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7.

Pain, Nigel and Welsum, Desiree(2004), International Production Relocation and Exports of Services, OECD Economic Studies No. 38, OECD.

SCB(Sweden), Balance of Payments, 각 호.

——, The Swedish Economy, 각 호.

U.S. Department of Labor(2007), America's Dynamic Workforce: 2007.

World Bank Group(2007), Review of the Dutch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rogramme.